

 이달의 주요소식

청소년을 위한 맡겨놓은 차 한 잔
군인관사, 문화시설로 변신
춘천지역먹거리직매장 개장

보내

춘천시 시정소식지

7월

JULY 2022



춘천연극제 상설공연



인구
289,674명
+313



가구
132,179세대
+315



출생아 133명
(2022년 누적 668명)



65세 이상 54,180명
+207



자동차 144,991대
(전기자동차 2,466대 포함)
+376(+129)

독자와 함께(66쪽)에 구독 의견을 보내주세요!

‘봄내 소식지’는 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봄내를 읽고 난 후의 소감(좋았던 기사, 아쉬운 기사, 개선 의견 등)을 bomnae1993@daum.net으로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에 소정의 고료(3만원)를 드립니다.

봄내 홈페이지 퀴즈에 도전하세요!

봄내 홈페이지 활성화를 위해 봄내 퀴즈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퀴즈에 참여하고 선물 받아 가세요.
퀴즈는 7월 1일(금) 봄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됩니다. 홈페이지 팝업창에 출제된 문제를 풀고 응모하면 됩니다.
정답자 중 100명을 추첨하여 모바일 춘천사랑상품권(5,000원)을 드립니다.

응모 기간 7. 1.(금) ~ 20.(수)

정답 및 당첨자 발표 7. 25.(월)



봄내소식지



bomnae.chuncheon.go.kr

※ 카카오톡에서 ‘행복알리미’를 친구 추가 하시면, 봄내 소식지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표지 설명 석사전에서 열린 춘천연극제 상설공연에 참여한 극단 ‘타쇼’의 ‘타쇼타임’ 공연

만나다

- 04 춘천은 지금 춘천행복교육지구 청소년 특화사업
- 06 춘천예술촌 개관
- 08 특별기고 시민의 정부 4년의 회고
- 12 시정뉴스 지역먹거리 직매장 개장 외 14건



즐기다

- 17 봄내 한 컷
- 18 이달의 책
- 19 우리동네 보물 찾기 남산면
- 22 봄내문화생활

품다

- 44 최돈선의 골목이야기 ㉓ 애들아 나오너라 달 따라 가자
- 48 최성각의 녹색이야기 ⑦ '노벨평화'에서 '생명평화'로
- 50 하창수의 사람이야기 ⑦ 초승달도 은하수도 다 가진 사람
- 52 허준구의 춘천백경 ⑨ 고개에서 춘천의 어제를 만나다

꿈꾸다

- 30 춘천 안심먹거리 가지
- 32 지구별 구하기 시원한 여름나기
- 34 문화지도 춘천의 제로웨이스트
- 36 봄내기업 현대파크
- 38 도란도란 춘천
- 42 우리 가족 이야기

나누다

- 54 심리툰 봄마음 내마음 제7화 가면과 그림자
- 55 행복나눔 후원릴레이
- 56 의회소식 제317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 58 봄내골소식
- 60 알림마당 / 축! 개업 대박 나세요
- 66 삼행시 / 독자와 함께

‘음료도 나누고 인생 경험도 나누고’



춘천시와 강원도춘천교육지원청은 지난해부터 ‘춘천행복교육지구사업’을 함께하고 있다. ‘우리봄내 동동’이란 이름으로 생활권별 마을돌봄교육공동체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 올해 청소년 특화사업이 추가됐다. 청소년을 위한 공간과 활동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을 같이하며 (재)춘천시마을자치지원센터를 비롯, 다양한 지역 기관이 함께하는 사업이다. 7월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을 소개한다.

글 김선순 · 일러스트 (재)춘천시마을자치지원센터 제공

춘천 청소년 환대 프로젝트

청소년을 위한 ‘말겨놓은 차 한 잔’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다가 아는 사람을 만났을 때 반가운 마음에 지인이 먹은 밥값까지 계산해준 경험들 한 번씩 있을 것이다. 또는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것이다.

‘남에게 베푸는 후한 마음’인 선심은 나와 남 모두를 행복하게 만든다. ‘말겨놓은 카페’는 바로 이런 선한 마음 프로젝트다.

카페에 가서 내 커피 값을 계산하면서 청소년들이 먹을 음료 한 잔 값까지 미리 계산해두는 캠페인이다. 이탈리아에서 먼저 시작된 운동인데 이를 청소년(14~19세) 대상 사업으로 벤치마킹한 것이다.

말겨놓은 카페에 참여할 카페는 6월 중으로 1차 신청을 마감했으며 11월까지 총 30곳을 채우는 것이 목표다. 시민 기부는 7월 1일부터 시작되며, 청소년들의 이용은 7월 15일부터 매주 수요일·금요일에 가능하다. 참여 카페 목록 및 기부·이용 현황은 홈페이지(<https://ccycafesospeso.modoo.at>)나 QR코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 춘천시마을자치지원센터 070-4177-6527



청소년이 지역의 다양한 사람을 만나는

다다른길 배움터

춘천에 사는 청소년들이 지역에서 살아가는 다양한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다양한 삶의 방식을 탐색하고 나의 길을 모색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이다. 7월부터 11월까지 방학과 주말을 활용해 진행된다. 직업으로 접근하는 단순한 진로체험 교육이 아니라 춘천에서 살아가는 다양한 선배 시민의 삶의 철학, 삶의 공간, 사는 방식 등을 다채로운 방식으로 천천히 알아간다. 청소년들이 주체가 되어 기획하고 실행하는 프로젝트 과정도 포함된다. 나의 길을 찾기 위한 과정을 학습하고 삶의 주인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돕는다. 15~19세 청소년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최대 25명의 참가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다다른길배움터는 옛 조달청 자리에 들어선 커먼즈필드 춘천을 거점으로 시내 곳곳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프로그램과 일정, 신청은 웹페이지(<https://anotherwayschool.modoo.at>)나 QR코드를 찍어서 들어가면 된다.

다른나 다른삶 다른길 나의길



다다른길 배움터 프로그램이 진행될 공간 커먼즈필드 춘천 '안녕하우스'



문의 춘천사회혁신센터 ☎912-5004



시민을 위한 인생학교

‘쉽표학교’

(재)춘천시마을자치지원센터가 지난해 5회에 걸쳐 진행한 ‘쉽표학교’를 올해 다시 연다. 쉽표학교는 일상에 지친 시민들이 쉽을 통해 자신을 찾고 삶의 전환과 연대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7월부터 11월까지 8회의 쉽표학교가 열리며 현재 7월 30~31일 프로그램의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

시민학교 홈페이지



쉽표학교 영상



7월 참가 신청



문의 춘천시마을자치지원센터 070-4190-6916



방치됐던 군인관사 ‘춘천예술촌’ 변신

기무부대 옛 관사를 리모델링한 춘천예술촌(소양로 4가 90-1)이 시민 곁으로 돌아왔다. 기무부대 관사는 2016~2017년 두미르 2차 군인아파트 입주가 시작된 이후, 오랜 기간 시민에게 외면받아 왔다. 춘천시는 낙후된 원도심 내 소외지역이었던 이곳을 창작공간소 ‘춘천예술촌’으로 조성, 시민과 예술가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예술가에게 안정적인 창작공간 제공

춘천예술촌은 예술인과 시민이 함께하는 공간을 꿈꾼다. 예술인에게 안정적인 창작공간을 제공하고 시민에게는 가까운 곳에서 문화예술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곳이다.

기존 관사 건물을 허물지 않고 춘천시 공공건축가 8인이 각 1개 동씩을 맡아 리모델링한 것이 특징이다. 대지면적 9,063㎡에 연면적은 932.78㎡, 입주 작가동과 시민 창작동 ‘예술 방앗간’, 사무동, 잔디마당 등으로 조성됐다. 지난 4~5월 창작 공방을 위한 공예 분야 예술인과 스튜디오 입주작가를 모집, 11팀이 선정돼 5월 말 입주를 끝마쳤다.

전문예술 11개팀 입주 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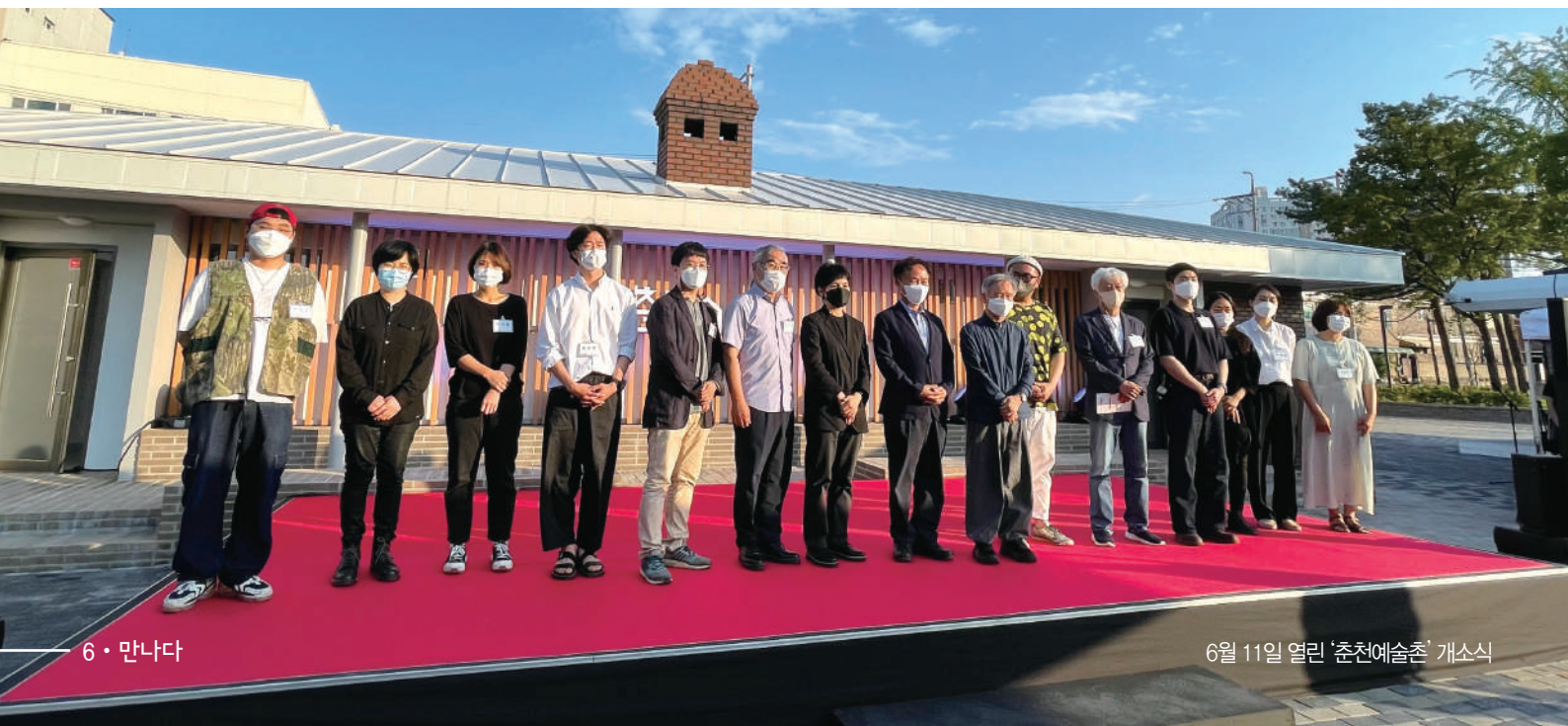
제일 먼저 입주가 결정된 곳은 수제 리코더를 제작하는 (주)지니악이다.

작가들의 스튜디오에는 김민영(Lucy), 박소영, 이광택, 이효숙, 송신규, 장승근, 전영진, 홍준호, 박시월(박예림), 정승혜 씨 등이 입주했다. 회화, 미디어아트, 설치미술 등 시각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예술팀이다. 입주작가로 선정된 이들은 스튜디오 1개 실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전시 및 공방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게 된다.

시민 문화예술 체험·교육 ‘예술방앗간’ 마련

시민창작동 ‘예술방앗간’은 시민과 예술인이 함께 할 수 있는 시민공방이다. 예술가들의 체험 강좌, 교육 프로그램 등이 운영될 예정이다. 나머지 1개 동은 관리동으로 사무실과 회의실, 창고 등으로 활용된다. 스튜디오와 시민창작동 사이에는 잔디마당이 마련돼 있다. 이곳은 각종 문화공연과 예술 행사가 열릴 수 있도록 개방된 공간이다.

글 · 사진 안선희



입주작가 4인 인터뷰

“젊은 작가와 소통 예술 대중화 기대”

이광택 회화



35년째 고향 춘천의 자연을 벗 삼아 안빈낙도의 삶을 그림으로 옮기며 살고 있는 작가는 이번에 생전 처음 공모·지원을 통해 자신만의

창작공간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한다.

이광택 씨는 “지금껏 집 안에서 작업을 하느라 대작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 스튜디오에서 대작을 하고 싶기도 하고, 재기발랄한 젊은 작가들에게 자극도 받고 싶어요”라며 “예술의 궁극적 목적은 관객과의 소통이죠. 이곳을 통해 시민과 함께 소통하면 예술의 대중화에도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밝혔다.

“단힌 것 열 수 있는 예술의 힘”

송신규 회화, 설치



춘천 출신인 송신규 씨는 대만, 순천, 원주, 양구 등에서 입주 작가로 활동하다가 이번에 고향으로 돌아왔다. 평소 빈집, 빈터 등을 주

제로 작업을 많이 해 온 작가는 “이 터가 저랑 잘 맞는 것 같아요. 오랜 기간 방치돼 있다가 시민에게 개방되는 거잖아요. 또 다른 재생을 기대하게 하잖아요”라고 말했다.

“예술은 삭막함, 단힌 것을 열 수 있는 힘이 있어요”라고 강조하는 작가는 “이곳에 잔디마당이 있어서 좋아요. 시민들이 쉽게 오가면서 작가들과 소통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시했다.

“춘천의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사랑받길”

조진희 공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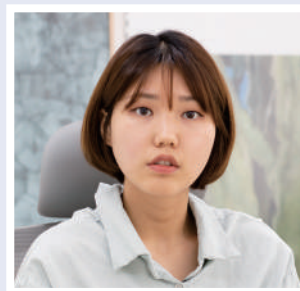


춘천 출신으로 최근 8년간 양평에서 수제 리코더를 제작하던 조진희 씨가 춘천예술촌에 입성하며 춘천으로 돌아왔다.

그는 “춘천은 리코더 문화를 한국에 보급시킨 발상지 같은 곳입니다. 한동안 춘천을 떠나 있었는데,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니 아는 사람도 많고 더 활동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잔디마당에서 공연을 열어도 좋을 것 같고, 이 곳이 춘천의 또 하나의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사랑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라고 밝혔다.

“춘천 생경한 아름다움 예술로 녹여낼 것”

박시월 회화



박시월 작가는 서울 출신으로 새로운 환경에서 자극받으며 경험을 쌓고, 새로운 동료 예술인과의 만남을 위해 춘천예술촌 입주를 신

청했다고 설명했다.

“예술촌 방 배정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며 들렸던 시골길이 있는데, 저에겐 굉장히 이색적인 논밭의 풍경이었어요. 생경하면서도 아름다운... 이곳 예술촌 활동을 계기로 춘천의 사계절을 온전히 지켜보고, 이 생경함과 아름다움이 작업으로 어떻게 녹아들지 저도 기대하고 있어요”라고 말했다.

시민의 정부 4년의 회고

민선7기 시민의 정부 춘천시장 이재수입니다.

지난 민선 7기 시민의 정부 4년을 회고해 봅니다. 결코 짧다 할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시정부는 그동안 무엇을 하려 했는지 주요한 몇 가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올해는 『침묵의 봄』과 함께 환경 분야 고전 중 고전인 『성장의 한계』가 출간된 지 50년이 되는 해입니다. 서유럽의 학자, 기업가, 정치인들이 참여한 ‘로마클럽’이 경제성장 제 일주의가 향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시대를 앞서 과학적으로 분석, 전망한 보고서였습니다.

이들은 무자비한 개발과 급속한 산업화가 계속되면 자원 고갈, 환경 파괴 등으로 인류 문명이 붕괴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들의 전망은 맞았습니다. 산업생산량, 인구 증가는 가속화됐고 환경 파괴로 인한 기후재난, 전염병 발생은 점점, 자주,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50년을 그대로 허비한 결과입니다.

민선 7기 시민의 정부가 제일 먼저 주목한 내용입니다.

‘국가는 지난 50년을 그냥 허비했다. 그리고 아직도 제대로 대응하고 있지 않다. 너무 늦었다. 지역에서라도 해야 한다. 실천적 활동이 필요하다. 다른 길을 가야 한다’

이 고백이 우리 시정부의 출발 지점입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 길을 준비했습니다. 성장에 얽매인 큰 거 한 방의 정치를 벗어던지고 탈성장 기조 속에서 시민이 주도하는 지속가능 도시를 내세웠습니다.

새로운 가치, 새로운 방식의 변화를 모색했습니다. 이를 하여 전환도시입니다. 양적 성장에서 삶의 질로의 전환입

니다. 대상에서 주체로의 전환입니다. 무한경쟁에서 상생로의 전환입니다. 파괴에서 생명으로의 전환입니다.

그 첫 번째 일이 1억 그루 나무 심기였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도심 내 숲과 나무들이 죄다 잘리고 파헤쳐져 사라졌습니다. ‘도시의 숲은 우리의 숨’이라 한 김훈의 말을 빌리면 우리의 숨통이 끊기고 있는데 누구도 저지하지 않은 것입니다. 헉헉거리는 도시의 숨통을 이어야 했습니다. 4년 동안 400만 그루의 나무를 심었습니다. 도로마다 빈자리에 어김없이 나무를 심었습니다. 도심 속 자투리 땅마다 나무를 심었고요. 바람길 녹지축을 만들어 산과 호수의 바람을 도심으로 유인했습니다. 시골길도 푸르름이 일게 했고요. 담벼락을 허물고 주차장 대신 나무를 심게 했습니다. 아마 3~4년 뒤 도시의 녹색피복이 다시 되살아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도시의 생명성도 활기를 띠게 되겠죠.

다음으로 우리가 중점을 둔 내용으로 쓰레기 정책의 대전환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쓰레기는 쓰레기가 아니다’라는 구호 속에 매립과 소각 위주의 정책에서 감량과 재활용을 우선하는 정책으로 전환시킨 것입니다. 청소과를 자원순환과로 이름부터 바꿨습니다. 정책의 기조 변화를 제대로 드러낸 것이지요. 시청부터 시작된 ‘1회용품 없는 청사 만들기’는 춘천의 8개 기관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시민이 주도하는 생활 속 자원순환 실천 활동들은 시골 도심 구분 없이 진행되었고 녹색장터 등 다양한 활동으로 확대 전개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코로나19로 쓰레기 양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에 춘천의 재활용률은 30% 이상 확대되고 쓰레기 배출 총량도 늘기보다는 적정성이 유지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춘천, 시민이 주인인 도시 지속 가능한 청정도시

민선7기 시민의 정부 시정철학



시민의 자부심과
자발적 에너지가 동력인 도시



에너지 자립, 대중교통,
자연 친화형의 지속가능 도시



외부의 힘에 의존하기보다는
우리 안의 자원으로 행복한 도시



노동을 존중하고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를 예우하는 착한 도시



농업과 그 관련 산업이
지역경제의 중심이 되는 도시



직접민주주의와 숙의민주주의가
가장 발달한 도시



문화와 예술이 자존감을 높이고
지역력·경제력이 되는 도시



통일을 준비하고, 안전·안심과
평화가 자원인 도시



협동과 호혜로 움직이는
세계제일 협동조합 도시



공동체 회복으로 이웃이 있어
행복한 나눔의 도시

도심 속 도로를 지배하며 매일 매연을 뿜어대는 자동차를 줄이는 일도 우리 시정부의 전환사업의 핵심입니다. 자동차는 정말 도시의 위협 요소입니다. 춘천의 공기 질이 전국 최악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지만 청정하지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미세먼지 탓도 있지만 분지인 도시 공간 구조상 자동차에서 나오는 매연이 도심 안에서 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사용을 억제하는 정책이 불가피했습니다.

자전거와 보행의 편리와 안전을 위한 도로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소양2교에서 공지천까지 2.3km 도로가 그 상징이고 시작입니다. 자동차 독점의 도로 시대를 마감하고 사람과 자전거와 숲과 문화가 함께 공존하는 새로운 도로가 만들어집니다.

캠ป์페이지 공원과 어우러져 춘천 최고의 핫플레이스가 될 것입니다.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시내버스 운용체계 개편과 공연회는 너무도 당연한 과정이었습니다. 자가용 대신 대중

교통을 선택하게 될 새로운 버스 이용객들을 위한 개편 방향이었죠.

예상은 했으나 초기 불편이 너무 컸고 어르신들을 힘들게 해드린 게 내내 가슴이 아픕니다. 민선 8기 시정에서 좀 더 지혜롭게 편리를 보완해 갈 것이라 봅니다.

그 외에도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전환사업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전기·수소 자동차 보급 확대, 에너지 패이를 통한 시민들의 탄소 감축 활동 지원, 지속가능 도시 공간 활용 계획 수립, 수소 융복합 기지를 통한 신재생에너지 거점 도시 발판 마련, 차세대 신개념 에너지원인 인공태양 춘천 유치 활동 등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 길을 기획하고 하나 하나 추진해 왔습니다.

그 새로움이 때로는 낯설고 불편했죠. 그러나 포기할 수도, 포기해서도 안 되는 우리 도시의 미래를 위한 길이었습니

다음으로 외부의 힘에 의존하기보다는 우리의 자원으로



1억 그루 나무 심기 선포식



(재)춘천시마을자치센터 개소식

행복한 도시를 만들고자 한 것입니다.

이는 양적 성장보다는 삶의 질을 중심으로 하는 전환도시의 핵심 내용입니다.

우리의 자원으로 으뜸인 것은 누가 뭐래도 문화예술입니다. 문화도시다운 문화도시의 참모습을 구현하고자 했습니다. 도심 곳곳에 문화예술의 향연이 펼쳐지고, 시민들이 스스로 문화를 즐기고 예술을 만끽했습니다. 정부로부터 문화도시로 인정받아 200억원의 예산도 확보했습니다. 도시 전체가 문화 살롱이고 문화 봄바람이 부는 춘천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1인1예'로 문화 감성을 키웠고, 예술인들은 춘천으로 삼삼오오 모여들었습니다.

춘천이 매력 있고 품위 있는 도시임을 증명하고 연구하는 춘천학연구소가 설립되었습니다. 마을마다 이야기 보따리가 가득하니 보석처럼 다듬어 뽐내기를 주저하지 않죠. 시민의 자존감이 높고 품위 있는 도시가 진짜 행복도시입니다.

성장중독 사회는 자연만 파괴한 것이 아니라 우리네 삶을 총체적으로 수렁에 빠지게 했습니다. 공동체는 해체되고 이웃을 잃었습니다. 가족마저 흔들리게 했습니다.

이웃을 복원하는 일이 시급했습니다. 환과고독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국가와 공동체의 책임입니다. 국가는 시스템으로 복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당사자들의 복지욕

구에 대응한다 하지만 평균적인 접근은 항상 설계주의 함정에 빠집니다. 정부의 복지정책은 개개인에게 최소한의 생존을 보장해 줄 뿐 행복으로 이어지게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웃 공동체의 회복을 통해 이웃의 어려움을 해소하자는 '선한 이웃 마을돌봄 프로젝트'가 가동되었습니다.

이웃이 이웃해 있는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시정부 공무원들과 복지기관 그리고 각종 관련 기관의 담당자들이 모여 함께 대책을 세우고 방안을 찾습니다. 마을 복지기획단이 만들어지고 일상적 지원활동을 수립하고 진행했습니다. 600여 위기가구가 발굴되었고 서로 돌봄으로써 어려움을 해소해 가고 있습니다. 이웃이 있어 행복한 나눔의 도시 춘천입니다. 이웃의 발견, 이것이 우리 시정부의 최대 역점이었습니다.

아이들 얘기입니다.

아이들에게 안전 안심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우리 지역공동체의 중요한 책무라 여겼습니다.

무상급식이 지역사회의 오랜 운동 끝에 성사됐지만 식자재 조달은 기존의 시장 거래 방식 그대로였습니다. 저가입찰을 통해 공급되다 보니 생산지가 불분명한 농산물이 식탁에 올랐습니다. 아이들 먹거리는 상품이 아닌 생명입니다. 지역 내 친환경 농산물 생산능력을 육성하고, 먹거리



춘천인형극제 상설공연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생산자 이름을 명시하여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는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춘천의 모든 초·중·고등학교가 이용하게 되어 그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윤을 우선하는 상품 거래를 대신해 농업인의 인격과 생명이 깃든 농산물을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일은 아이들, 부모님, 농업인, 학교 모두의 행복일 것입니다.

시민이 있어야 할 자리에 시장, 정치인이 있었습니다. 정치인이 나서고 관이 주도하니 시민은 뒷전이었죠. 매사 관에 의존했습니다. 관이 나서야 편했고 의존적 사회 분위기는 내면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민이 주도하도록 하는 체제의 전환이 필요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시장이 나서지 않는 것부터 했습니다. 해마다 반복되어 왔던 읍·면·동 초도순시를 없애고 마을별로 주민들이 직접 의제를 발굴하고 총회를 통한 지역계획을 갖게 했습니다.

관이 빠지고 시장이 나서지 않으니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의제들이 채택되었습니다.

새로운 상상력이 마을마다 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민들이 해내고 있었습니다. 어린이 잼잼 놀이터가 그 대표적인 사례고요. 마을별 아이돌봄체계를 구축한 것 또한 그 성과입니다. 산책로에는 새로운 꽃길이 조성되고, 동네 길가에 아이들 그림이 걸렸습니다. 아파트와 마을들은

축제 준비로 들떠 있습니다.

직접 민주주의와 속의 민주주의가 가장 발달한 도시 춘천, 시동이 걸린 것입니다. 도시의 현재도, 미래도 시민이 만들어 갈 것입니다. 되돌릴 수 없는 도시의 민주적 작동원리이고 도시운영체계입니다.

춘천이 지난해 ‘국제 슬로시티’가 되었습니다. 슬로시티의 우리말은 참살이입니다. 좋은 삶, 행복한 삶입니다. 슬로시티의 상징은 달팽이입니다.

달팽이 껍질은 나선형으로 2배씩 커지다가 갑자기 줄어듭니다. 더 커지면 자기 몸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죠. 자연은, 생명은 어떤 한계점에서 스스로를 통제합니다. 자기 복원력입니다.

우리는 기후위기에 놓인 첫 세대이자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세대라고 합니다.

이제 한 시민으로서 시민들이 만든 변화를 잇는 데 함께 하겠습니다.

퇴임을 앞두고 4년을 정리하다 보니 소회의 말씀이 길었습니다.

재단법인 지혜의 숲, 협동조합, 농업회의소, 장애인 정책, 대학도시, 청년청, 먹거리 지역내 선순환 체계 구축, 서로돌봄마을... 다 전환적 시도였고 문명의 틀을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전환 과정에서 부족한 점,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혼선과 불편에 대해서는 다시금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보내 주신 성원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마을, 도시의 주인으로 진짜 행복한 삶의 주체가 되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민선 8기의 성공을 기원하며 시민 여러분의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글 이 재 수

2018년 7월 1일에서 2022년 6월 30일까지

민선7기 시민의 정부 춘천시장 역임.



“신선하고 안전한 춘천 먹거리 다 모였다”



춘천지역먹거리 직매장 개장

춘천 지역먹거리 직매장이 탄생했다.

소규모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시민에게는 건강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제공하는 춘천 지역먹거리 직매장이 5월 27일 임시 개장했다.

지역농산물, 가공품 판매 및 정육 코너 등이 있는 직매장 동, 베이커리, 반찬, 즉석음료 코너가 있는 카페 동, 그리고 사무실 동으로 이뤄진다.

현재 150여 개 농가 370여 개 품목이 판매되고 있으며, 관내 농산물가공업체 20여 개소 70여 개 품목도 출하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감자, 고구마, 대파, 토마토, 상추 등 지역 농산물을 포함해 두부와 콩물, 고추장류, 동물복지계란류, 만두 등 가공품도 구입할 수 있다.

춘천 지역먹거리 직매장은 2019년 6월 설립된 재단법인 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맡는다. 정육, 베이커리, 반찬 등 일부 코너는 전문 자격을 갖춘 업체에서 위탁 운영한다.

삼천동 시립청소년도서관 인근에 위치

지역먹거리 직매장은 국·도비 9억원, 시비 16억원 포



함, 총 사업비 25억원이 투입돼 삼천동 시립청소년도서관 인근 공영주차장 부지에 연면적 590㎡, 지상 1층 규모로 지어졌다.

이영훈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춘천 지역먹거리 직매장 개장은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지역에서 소비되는 ‘안전 먹거리 지역순환 체계 구축’의 큰 성과”라며 “소규모 농가에게는 안정적인 소득 창출 기회를, 소비자에게는 건강한 지역 먹거리를 제공해 이를 토대로 지역의 특색을 살린 먹거리 체계를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전 9시~오후 8시 운영되며 매월 첫째 주 월요일과 명절 당일 및 익일은 휴무일이다.

김가윤·쑤신이 '춘천 국제 어린이 그림교류전' 대상

〈춘천 성원초 6년〉 〈중국 다렌 젠서 1년〉

7개국 33개 도시 어린이 작품 1,123점 출품 지난해 이어 두번째 문화 교류 통한 우호 증진

전 세계 어린이들의 꿈과 희망을 도화지에 담은 제2회 춘천 국제 어린이 그림교류전이 5월 27일 개최됐다.

춘천시는 지난 4월 1일부터 15일까지 제2회 춘천 국제 어린이 그림교류전 작품을 접수했다. 이 기간 7개국 33개 도시의 어린이가 작품을 출품했다.

총 출품작 1,123점 중 엄정한 심사 과정을 거쳐 대상을 비롯한 수상작 129점을 선정했다.

심사 결과 대한민국 김가윤(춘천 성원초교·6학년) 학생의 '우리동네 현책방'과 중국 쑤신이(다렌 젠서·1학년) 학생의 '많은 해가 지난 뒤'가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외 금상 6명, 은상 10명, 동상 20명, 장려상 30명, 입선 61명이다.

한편 올해 두 번째로 열린 춘천 국제 어린이 그림교류전은 문화교류를 통해 국내외 도시와의 우호를 증진하는 축제의 장이다.



김가윤(춘천 성원초 6년) '우리동네 현책방'(왼쪽 그림)
쑤신이(중국 다렌 젠서초 1년) '많은 해가 지난 뒤'

이를 통해 미래 세대 간 공감대를 확산하고 우호 관계 유지 및 협력을 강화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와는 달리 춘천에 국한했던 국내 도시를 전국으로 확대했다.

대외협력담당관실 ☎250-4379

시청·시의회·시립도서관 '미술관' 깜짝 변신

지역작가전...문화예술 향유 기회 제공

공공청사가 미술관으로 변신한다.

춘천시는 지난 5월 16일부터 시청, 시의회, 시립도서관에 미술작품을 전시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 2년여간 코로나에 지친 시민에게 위안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춘천 미술인단체 소속 작가 등 지역 작가 44명의 작품 80여 점이 전시된다. 문인화, 한국화, 서양화, 조각 등 다양한 작품으로 구성하여 평면작품 69점, 입체작품 10점을 전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지친 시민에게 일상 속에서도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었다"며 "공공청사를 방문하는 시민이 미술 작품을 보고 힐링을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화예술과 ☎250-3447

관광지·상가 166곳 문턱 사라졌다

장애인 위한 편의시설 '장벽 없는 도시' 조성



지난 2년간 춘천 내 관광지와 상가 밀집 지역 166곳의 장벽이 사라졌다.

춘천시는 2020년부터 장애인이 살 만한 도시 구현의 일환으로 장벽 없는 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2020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춘천지역 내 관광지 및 상가 166곳에 장애인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등 편의시설이 설치됐다.

올해도 사업비 5,000만원을 투입해 후평동 등 70개소에 편의시설을 설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전국 최초로 장애 인지적 정책 조례를 제정한 시정부는 올해도 장벽 없는 거리 조성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애인복지과 ☎250-4326

꿀맛 ‘뚝뚝’ 춘천 하니원 첫 출시

당도 선별·포장라인 등 현대화시스템 구축



춘천 대표 과일인 춘천 하니원 멜론이 6월 5일 첫 출시 됐다.

하니원 멜론의 전국적인 인기에 맞춰 올해 생산계획은 20만개 이상이다. 특히 올해는 시의 지원을 통해 하니원 멜론 출하농협인 춘천원예농협에 비파괴 당도 선별 및 포장라인을 새로 설치하는 등 현대화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공동출하 참여농가 및 생산 물량을 확대해 안정적인 물량 공급에 주력할 계획이다.

춘천 하니원 멜론은 춘천 지역 원예 농가가 전국에서 독점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과일이다.

당도가 일반 멜론보다 훨씬 높은 15~20브릭스(Brix)로 출하 때마다 전국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기술지원과 ☎250-4413

농공단지 국비 45억원 확보 ‘재도약’ 발판

산업부 공모사업 선정…거두·퇴계단지 활성화 추진

춘천 거두농공단지와 퇴계농공단지가 한 단계 도약한다.

춘천시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2022년도 농공단지 패키지 지원사업 대상지로 춘천을 선정했다.

농공단지 패키지는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핵심사업인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복합센터 건립, 혁신지원센터 건립,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함께 묶어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춘천시는 국비 45억원을 확보, 2024년까지 총 사업비 72억원을 들여 복합문화혁신지원센터와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한다. 먼저 63억원이 투입되는 복합문화혁신지원센터는 거두농공단지 내에 구축된다. 지상 3층 규모로 문화공간과 식당, 사무공간, 공동커뮤니티공간, 기업컨설팅실, 기타 편의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아름다운 거리는 퇴계농공단지에 만들어지며, 사업비는 9억원이다.

기업과 ☎250-4225

봄내카드 발급 이후 시내버스 이용량 급증

한 달새 13만명 늘어…위드 코로나 등 영향 분석

65세 이상 어르신이 춘천 시내(마을)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봄내카드 발급 이후 시내버스 이용자가 늘고 있다.

춘천시에 따르면 시내버스 이용자는 4월 84만명에서 5월 97만명으로 한 달 새 13만명이 증가했다. 주요 증가 요인은 위드 코로나와 어르신 버스 이용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5월 6일부터 31일까지 어르신 버스 이용 건수는 8만8,448명으로 1일 평균 3,687명이다. 아직 발급받지 않은 65세 이상 어르신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봄내카드’를 신청한 후 발급받으면 된다. 본인이 신청이 어려운 경우 위임한 사람이 자신의 신분증과 도장,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을 지참하면 대리 신청 가능하다. 춘천시 어르신 버스 무료 교통카드인 봄내카드는 한 달에 최대 20회까지 이용 가능하며, 매달 자동으로 20회 이용권이 충전된다.

대중교통과 ☎250-3034

중기육성자금 융자 200억→400억 확대

소상공인·중기(일반) 각각 최대 3,000만원·5억원

올해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규모가 400억원으로 확대된다. 춘천시는 최근 경기침체 장기화와 자금난 심화에 따른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 기업 증가에 따라 당초 200억원의 융자 규모를 400억원으로 늘렸다. 실제로 시는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334개 기업에 181억원 규모의 융자를 추천해 지원했다.

올해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운전·시설 자금으로 각각 최대 3,000만원과 최대 5억원의 융자를 추천받을 수 있다. 단, 사치·향락 등의 업종은 제외된다.

융자 지원 대상자로 확정되면 금융기관에서 융자받는 대출금의 대출이자 2~3%를 최대 4년간 지원받게 된다.

신청은 올해 자금 소진 시까지로, 먼저 은행을 방문해 대출 상담을 받은 후 시청 기업과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기업과 ☎250-3088

귀농인 대상 농업창업·주택 구입 지원

7월 8일까지 신청... 농협자금으로 저금리 대출

춘천시는 귀농인의 농업창업과 주택 구입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농협자금을 활용해 대출을 저금리로 실행하고, 대출금리와 저금리와의 차이를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이차보전지원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만 65세 이하의 세대주로 1년 이상 농촌 외 지역에서 거주하다 농촌으로 전입한 지 5년이 넘지 않은 귀농인 또는 농업 종사 예정자다. 또, 1년 이상 농촌 지역에 거주하면서 5년 이내에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재촌 비농업인도 대상이다.

대상자들은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는 등 여러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7월 8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과로 하면 된다.

미래농업과 ☎250-3546

강남동행정복지센터 뒤편 ‘일방통행’ 지정

방송길 86 주변...보행자 안전확보·교통흐름 개선 기대



강남동 행정복지센터(방송길 86) 뒤편 도로가 일방통행로로 지정된다. 지정 구간은 춘천시 온의동 6-37번지에서 온의동 18-4번지까지다.

통행 방향은 온누리공원과 공영주차장 사이의 도로에서 시작해 강남동행정복지센터 뒤편으로 지나가는 방향이다.

해당 구간은 도로 옆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보행 및 차량 통행 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구간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일방통행로 지정은 안전한 보행로 확보 및 교통흐름 개선을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주변 교통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중교통과 ☎250-3415

“공원에서 술·담배 안 됩니다”

9월 1일부터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춘천시보건소는 도시공원에서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과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홍보에 나섰다.

홍보장소는 도시공원 중 금주구역으로 일부 우선 지정된 의암공원, 공지천조각공원, 큰골공원, 수변공원, 낙원문화공원 등 5개소이다. 홍보기간은 오는 8월까지로 총 8회 야간(7~9시)에 도시공원 이용자들에게 홍보를 한다. 이번 홍보에서 금주구역으로 지정된 도시공원에서 음주를 하면 9월 1일부터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됨을 알리고, 더불어 절주 및 금연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홍보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금주구역을 미처 알지 못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다각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건강관리과 ☎250-4666

거리 방치 자전거 95대 다시 “따르릉”

12개 학교에 기증...2013~2021년 1,343대 전달



거리에 방치된 자전거가 올해도 지역 내 학교에 기증됐다. 춘천시는 6월 8일부터 10일까지 95대의 재생자전거를 학교 12곳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방치 자전거 기증은 공공장소에 방치된 자전거를 수거해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이를 재활용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다. 거리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는 계고안내문 부착 이후 10일 이상 동일 장소에 방치되면 자전거재생센터로 수거된다. 이후 14일 이상의 강제처분 공고를 거쳐 사용이 가능한 자전거는 수리 후 재생자전거로 탄생하게 된다.

춘천시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재생자전거 1,343대가 지역 학교 등 90개 기관에 전달됐다. 생활교통과 ☎250-3643

어린이집 170개소 안전·급식·위생 점검

8월 12일까지...유통기한·주방설비 청결 등 확인



춘천시가 8월 12일까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안전 및 급식·위생 점검에 나선다.

안전 및 급식·위생 점검을 통해 시정부는 지역 내 어린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챙길 방침이다. 점검 대상은 급식 위생의 경우 상시급식 인원 50인 미만 140개소, 안전점검은 30개소다.

급식 위생은 춘천시어린이급식지원센터의 협조를 받아 진행한다. 점검 내용은 개인 위생관리 상태, 조리기구 및 주방설비 청결 상태, 유통기한 준수 여부 및 안전전반 사항 등이다.

시정부 관계자는 “안전 및 급식 위생 점검을 통해 우리 지역의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겠다”라고 말했다.

보육아동과 ☎250-4324

“찰칵” 춘천을 찍어주세요

춘천관광사진공모전...10월 4~28일 접수

제16회 춘천관광 전국사진공모전이 개최된다.

공모분야는 ▲춘천의 숨은 관광지 ▲춘천 대표 관광자원(관광명소, 자연경관, 자연경관, 축제 등) ▲새로운 관광트렌드(호수, 걷기길 등 비대면 관광지, 신규개장 관광지 등) ▲춘천 배경 가족사진 및 아름다운 야경(특별상) 등 4개 분야다.

접수기간은 오는 10월 4일부터 28일까지다. 다만, 작품은 2020년 10월 26일부터 올해 10월 28일까지 촬영된 것이어야 한다. 시상내역은 금상 1명, 은상 2명, 특별상 2명, 동상 3명, 가작 5명, 입선 68명 등 총 81명이다. 수상작은 시정부 홍보 및 행사자료, 관광지 전시, 공익광고 및 공익사업 등에 활용된다.

작품 접수 등 문의는 춘천시 관광과나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춘천지부(242-3666)로 하면 된다. 관광과 ☎250-4473

회의·체육시설 대여 ‘공유누리’ 아시나요

각종 공공개방자원 예약·결제 이용 가능

춘천시가 공공개방자원을 예약하고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인 공유누리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공유누리’는 행정안전부가 구축한 공공개방 자원 공유 플랫폼이다. 시민들이 전국의 시설이나 물품 등 공공개방 자원을 검색하여 이용할 수 있는 공유서비스다.

회의실, 체육시설, 주차장 등의 시설이나 방역물품, 농기계 등을 검색하고 예약할 수 있다.

‘공유누리’는 홈페이지(www.esshare.go.kr)나 모바일 앱(공유누리)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자원에 따라 이용료가 있으며, 사전에 이용 심사가 필요할 수도 있다.

기획예산과 ☎250-3211



퇴계천에서 만난 오리가족

박창연



하중도 산책길에서

김선옥

내가 좋아하는 하중도 산책 중. 자연과 함께하는 이 순간, 셀레임 가득!



춘천닭갈비 맛있어서♡

조미영

춘천닭갈비는 볶음밥까지 먹어줘야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서 하트♡



라벤더의 향기속으로

최은영

춘천애니메이션박물관 입구에서 여름의 시작을 라벤더 향기로 알게 됩니다.



소양강 노을

채담미

저녁 가족 산책길에 찍은 소양강 노을입니다.^^

이 달의 책

모피방



전석순 지음 | 소설집 | 민음사 펴냄 | 308쪽 | 1만3,000원

2008년 강원일보 신춘문예를 통해 작품 활동을 시작해 2011년 『철수사용설명서』로 제11회 ‘오늘의 작가상’을 수상한 소설가 전석순의 첫 번째 소설집이다.

제목인 ‘모피방’은 내부에 기본 골조 외에 어떤 다른 옵션도 없는 방을 뜻한다. 무한한 가능성과 무한한 갈팡질팡의 대명사처럼 보이는 모피방이라는 공간의 방식. 전석순의 소설에는 그 방식을 닮아 눈이 부시게 하얗기만 한 날들 앞에서 알맞은 자리를 찾으려는 이들이 등장한다.

작가는 막막한 삶의 소용돌이 앞에 조용히 서서 가만히 손가락을 꼬아 보는 인물들을 그려낸다. 휘청거릴지언정 균형을 잡고 포기할지언정 버텨내는 인물들은 소설을 읽는 우리가 삶에서 백색 공간을 마주했을 때 각자의 방향 잡기를 도와줄 것이다.

검은 봉다리



유기택 지음 | 시집 | 도서출판 북인 펴냄 | 144쪽 | 1만원

2018년 강원문화예술상을 받은 샘밭 시인 유기택의 일곱 번째 시집이다.

‘검은 봉다리’ 연작시 4편 외 ‘사상(絲狀)의 지평선’, ‘봄 그리고 부귀리(富貴理)’, ‘삼각김밥 벗기는 법’, ‘그거’ 등 시집 한 권에 독자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시들이 수도룩이 실려 있다.

‘그거 알아?’// 이순을 넘기고도/ 비 갠 저녁 하늘에 선 무지개를 보면 잠깐씩 설레는 거//(중략) 안 보인다고 없는 건 아니지/ 이쯤에도 한번씩 들렀다 가는/ 우리를 펴뚫고 가는 소나기도 그렇지/ (중략) 생은 갑자기 아무것도 없지/ 저녁은 우리 일이지만 아침은 신의 일이지//(중략) ‘그거 알아?’

꽃이 피는 속도처럼 멀고도 아련하고 서늘한 그늘을 지나 벚꽃처럼 터진 이번 시집 『검은 봉다리』는 춘천이 기른 또 한 명의 시 노동자가 예술가로 피어나는 찬연한 광경을 보여준다.

열여덟 살 우리는 사랑을 이렇게 얘기하지



김가현 외 17명 지음 | 만화집 | 달아실출판사 펴냄 | 356쪽 | 1만2,000원

문화콘텐츠를 전공하고 있는 강원애니고등학교 열여덟 명의 학생(김가현, 김민성, 김아진, 박주선, 석수아, 성시연, 심연경, 윤예나, 이소영, 이지민, 이하늘, 장지은, 장한비, 정서윤, 표하늘, 한다을, 심서연, 채리)이 펴낸 만화콘텐츠 단편집이다.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작가들이 그들 스스로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상업 만화와는 다른 결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이번 만화집의 가장 큰 가치는 청소년들의 지향과 정서로 바라보는 우리 사회에 대한 실재를 청소년 ‘나’의 이야기로 만날 수 있다는 점이다.

소소한 사랑과 우정의 이야기, 고등학생의 의식 수준에서 파악하는 모순된 사회 현실 이야기 등이 기존의 서사와는 달리 비릿함을 감추지 않은 날것 그대로의 맛으로 다가올 것이다.



남산면 강촌리 전경. 레일바이크와 강촌유원지, 출렁다리, 경춘선 등이 보인다. 사진 유현식

관광·레저·농업·산업 ‘팔방미인’ 남산면

면 소재지 창촌리 등 10개 행정리

MT의 성지, 아삭한 춘천 오이와 달달한 단호박 주산지, 서울양양고속도로와 경춘선이 통과하고, 산업단지와 농공단지가 있고, 골프리조트와 스키장에 MTB산악자전거코스, 레일바이크, 수목원, 남이섬까지.... 남산면을 떠올리면 관광과 레저, 휴식과 농업 등 춘천의 자랑거리가 끊임없이 이어진다.

본래 춘천의 남쪽산 바깥 지역이라 하여 남산외면으로 불리다가 지금의 남산면으로 개칭된 것은 1989년 남면 발산출장소 관할구역을 남면으로 분리하고 종전의 남면을 남산면으로 개칭하고 나서부터다. 산수, 광판, 행촌, 수동, 창촌, 방곡, 강촌, 서촌, 백양, 방하리 등 10개의 행정리에 21개의 법정리를 두고 있으며 면소재지는 창촌리다. 인구수는 1,997세대에 3,427명(6월 7일 기준)에 이른다.

빙벽등반부터 수상스포츠까지 사계절 인기

남산면 관광지는 1년 내내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진다. 특히 강촌리는 대학생들의 열정과 함성이 그득했던

MT의 성지이자 강촌 출렁다리와 메밀꽃밭, 자전거코스, 레일바이크 등이 있어 남산면의 대표적인 관광지이기도 하다. 또 북한강변을 따라 관광객을 위한 펜션과 수상스키나 각종 수상 레저를 즐길 수 있는 수상스포츠시설도 준비하다.

농공단지·산업단지도 든든한 한 축

남산면은 역사적으로 의의가 깊은 곳으로, 춘천의병대장 습재 이소응 선생의 고향 또한 남산면이다. 습재 선생의 공적비가 춘천시립남산도서관에 세워져 있다.

관광과 농업에 이어 또 한 축을 이루는 것이 남산면의 농공단지와 산업단지다. (주)더존기업이 들어선 수동농공단지를 비롯해 창촌농공단지와 전력IT문화일반산업단지, 남춘천일반산업단지(현재 행정구역 변경으로 동산면 편입) 등이 자리해 있다. 남춘천산업단지 1지구가 분양 완료된 이후 2지구를 추진 중이며, 창촌농공단지 또한 빈공장 부지를 찾는 문의가 올 정도로 인기가 높다. (주)더존기업

글 안선희 · 사진 명예시민사진기자 김영희, 하성재

강촌레일파크 경강레일바이크

붉은 벽돌로 지어진 옛 경강역을 출발해 북한강 철교에서 화차, 경강역으로 돌아 오는 총길이 7.2km 코스다. 계절에 따라 모습을 달리하는 느티나무터널, 북한강을 가로지르는 높이 30m의 아찔한 북한강 철교를 횡단하기도 한다. 반려견 동반 탑승이 가능한 펫 바이크도 운영되고 있다.

📍 서백길 57



제이드가든

순백의 아름다움을 지닌 정원과 계절마다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오는 3,900여 종의 꽃과 나무가 가득한 수목원이다. 산책로가 잘 갖춰져 있고, 아름다운 배경은 드라마와 화보, 광고 촬영장으로 도 자주 이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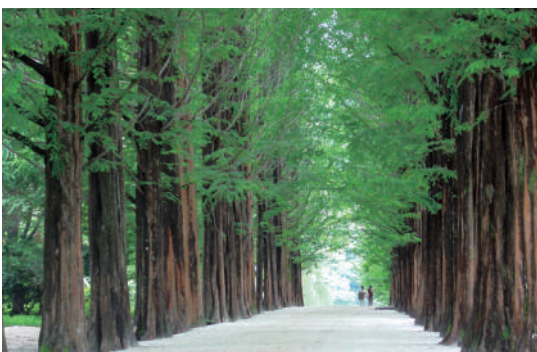
📍 서천리 햇골길 80



남이섬

아름다운 동화와 노래를 선물하는 상상공화국 나미나라공화국이 세워져 있다. 다양한 문화행사, 콘서트 및 전시도 꾸준히 열리고 있다. 국내 최초 유니세프 어린이 친화 공원으로 선정됐으며, 장애인과 어르신, 영유아 모두의 관광 활동이 보장되는 열린 관광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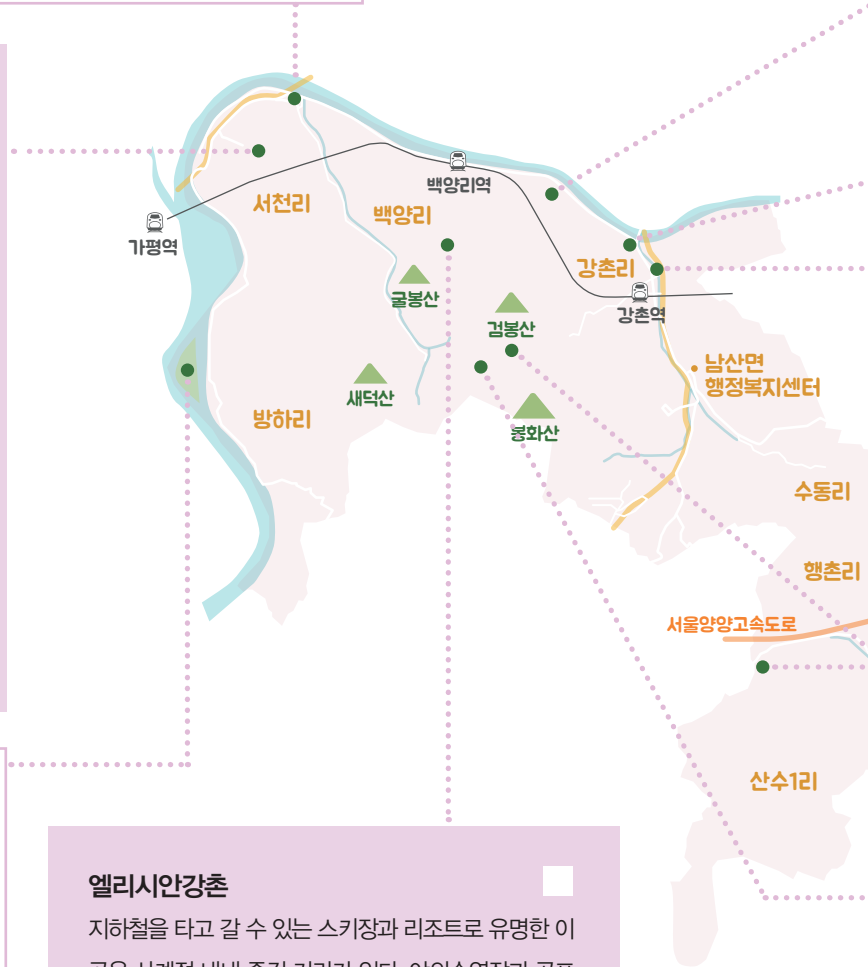
📍 남이섬길 1



엘리시안강촌

지하철을 타고 갈 수 있는 스키장과 리조트로 유명한 이곳은 사계절 내내 즐길 거리가 있다. 야외수영장과 골프장 등도 갖추고 있다.

📍 북한강변길 688



백양리 폐역

1930년대 건립된 건물로, 2010년 12월 수도권 광역전철이 개통되면서 폐역으로 남았다. 백양리역의 오랜 역사와 발자취를 만날 수 있으며, 최근 창고를 십터로 조성해 시원하게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다.

📍 북한강변길 910-14



강촌상상역(옛 강촌역과 피암터널)

강촌역사가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구구리공방으로 재탄생했다. 이곳에서 지역 주민들이 도자기 등을 제작해 마을을 가꾸고 있다. 또 이곳은 봄내길 7코스 '북한강 물새길'의 시작점이기도 하며, 피암터널은 태권브이 그림 등 그래피티가 남겨져 있다.

📍 강촌로 34



강촌 출렁다리공원

예전 강촌 출렁다리를 재현해 놓은 곳으로, 출렁다리 양 끝에는 추억광장과 공원이 있다. 추억광장에는 옛 강촌 출렁다리 사진과 과거 대학생들로 붐빈 강촌의 모습이 영화 필름처럼 꾸며져 있다. 나훈아의 '강촌에 살고 싶어' 노래비 또한 옛 추억을 떠올리게 한다.

📍 강촌리 671-5



강아지숲

남산면과 남면 경계에 있는 반려견 테마파크로, 엄청난 크기의 건물이 시선을 끄는 곳이다. 강아지 대기실과 박물관, 마켓, 카페 등이 마련돼 있다. 산책로를 따라 건물 뒤편으로 가면 강아지 운동장 등이 있으며, 주말엔 도그쇼 공연도 열린다.

📍 충효로 437



문배마을

구곡폭포 입구에서 오른쪽 능선길로 40분 정도 오르면 분지 마을인 문배마을에 닿을 수 있다. 한 폭의 풍경화처럼 보이는 시골 풍경이 인상적이다. 마을 곳곳에 산채비빔밥과 토종 닭백숙 등을 먹을 수 있는 맛집이 즐비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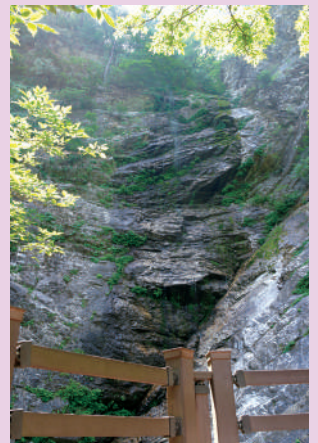
📍 강촌리 444-11



구곡폭포

아홉 굽이를 휘돌아 떨어지는 폭포라 '구곡폭포'라 이름 붙였고 구구리폭포라고도 불린다. 큰 비가 내린 뒤에 보면 기암괴석을 타고 흘러내리는 폭포가 장관을 이룬다. 겨울에는 빙벽 등반을 즐기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진다. 구곡폭포관광지 내 조성된 국민여가캠핑장에서 하룻밤 쉬어 갈 수도 있다.

📍 강촌구곡길 254



봄내문화생활

[연극] 뷰티풀라이프

한 남자, 그리고 한 여자. 두 사람이 처음 만나 서로 호감을 갖고 연애를 한다. 죽고 못 살 정도로 님살 커풀이지만, 결별을 거듭하다 결혼까지 성공하게 된다. 인생이라는 큰 쳄바퀴 안에서 힘들어도 잘 이겨내고 결국 서로의 마음을 다시 확인하게 되지만, 누군가는 홀로 남겨지게 된다. 인생을 뒤로 돌려보며 다시금 떠올리게 되는 너와 나, 그리고 우리네 사랑 이야기다. 춘천 5차 앙코르 공연이다.

일시 5. 1.(일) ~ 7. 31.(일) 토·일 오후 2시·오후 5시
장소 소극장 연극바보들(호자동 629-5 지하1층)
입장료 1만 ~ 3만원
관람연령 만 7세 이상
예매 booking.naver.com/booking/12/bizes/677187/items/4365736
문의 ☎1644-3196



[춘천시립교향악단 패밀리콘서트II] '아리아와 가곡의 밤'

춘천시향이 특별 연주회를 마련, 푸치니, 베르디 등 주요 작곡가들의 오페라 작품 중 아리아와 이중창 그리고 우리의 정서와 감정들이 담긴 한국 가곡을 선보인다. 오페라에 대한 탁월한 해석력을 자랑하는 지휘자 김덕기(전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교수)의 객원 지휘와 함께 풍부한 성량과 기량으로 관객들을 사로잡으며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실력파 성악가 소프라노 서선영, 테너 강요섭, 베이스 함석현이 무대에 오른다.

일시 7. 1.(금) 오후 7시 30분
장소 춘천문화예술회관
입장료 전석 1만원
 (춘천시민 30% 및 학생 50% 할인 등)
관람연령 만 7세 이상(8세부터)
인터넷예매 www.ccart.kr
문의 ☎259-5869 / 5878



[CC블루스 페스티벌] '골든아워 인 블루스'

국내 최고의 정통 블루스 축제 '2022 CC블루스 페스티벌'이 열린다. 호수 위 황금빛 노을이 비치는 춘천을 배경으로 열리는 한 여름밤의 블루스 축제는 위로와 안식, 열정까지 복합적인 인간의 감정을 오롯이 전달할 것이다. 김목경 밴드를 비롯해 찰리정블루스밴드 with 웅산, 한상원 밴드 등 국내 최정상 블루스 뮤지션이 참여한다. 자세한 공연 시간과 출연진은 페스티벌 홈페이지(ccblues.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일시 7. 8.(금) ~ 10.(일)
장소 KT&G 상상마당 일원
입장료 5만원(블루티켓) ~ 6만원(골드티켓) (국가유공자, 지역(강원도)민, 어린이 · 청소년 · 대학생, 예술인 패스 20%, 장애인 50% 할인)
예매처 인터파크, 티켓링크
문의 ccblues.kr
 ☎010-4064-3318



[춘천문화예술회관 기획공연] 국립오페라단 '라 트라비아타'

국립오페라단이 베르디가 남긴 가장 진실하고 순수한 사랑의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로 춘천시민을 만나다. 절제된 화려함과 우아함의 색채를 입힌 아르노 베르나르의 미장센, 1950년대 풍의 세련된 오토 쿠틀르 의상으로 펼쳐는 사실주의적 무대를 통해 우리나라 최정상급 성악가들이 완벽한 드라마로 펼쳐낼 예정이다.

일시 7. 8.(금) 오후 7시 30분 / 7. 9.(토) 오후 5시
장소 춘천문화예술회관
입장료 R석 5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할인권종 있음)
관람연령 초등학교생 이상 관람 가능
인터넷예매 www.cccf.or.kr
문의 ☎259-5822~4



* 코로나19 및 주최 측 사정에 따라 세부 내용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들판] 한평극장 vol.6 'One More Time'

8주 동안 달밤에 댄스 프로그램을 통해 '점점'을 주제로 찾아낸 움직임들을 함께 공유한다. 나는 어느 지점에 서 있는지, 점과 점 사이의 균형, 사람과의 접점, 변화하는 지점과 상태 등 다양한 질문을 나누고 춤을 통한 각자의 해답을 담아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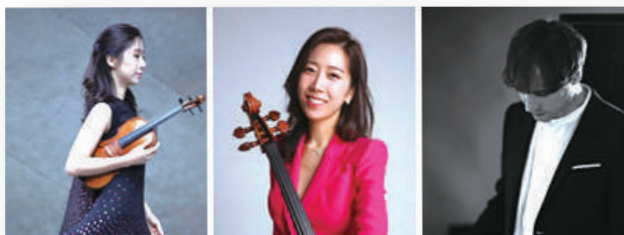
일시 7. 8.(금) ~ 9.(토) 오후 7시 30분
장소 당신의 들판(가연길5번길 14-10, 2층)
입장료 전석 무료
관람연령 전 연령층 입장 가능
예매문의 ☎259-4541/ 010-7118-8766



[춘천시립교향악단 제162회 정기연주회]

춘천시향의 제162회 정기연주회에서는 독일 출신의 대표적인 고전주의 작곡가이자 음악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업적을 이룩한 작곡가 베토벤의 '바이올린, 첼로, 피아노와 관현악을 위한 협주곡'을 시작으로 지난 20세기 근대음악에 공헌한 작곡가 프로코피예프의 '교향곡 제1번 라장조 작품번호 25번'을 선보인다. 출연진으로는 실력파 연주자 바이올리니스트 김재원, 첼리스트 이정현 그리고 피아니스트 일리아 라쉬코프스키가 함께한다.

일시 7. 14.(목) 오후 7시 30분
장소 춘천문화예술회관
입장료 전석 1만원(춘천시민 30% 및 학생 50% 할인 등)
관람연령 만 7세 이상
인터넷예매 www.ccart.kr
예매문의 ☎259-5869 / 5878



[춘천시립청소년교향악단 특별연주회]

'실내악 음악의 향연'

청소년 음악인들이 열정의 무대를 선보인다. 실내악 연주를 통해 앙상블 음악의 화합 및 개인 기량을 향상시킨 성숙된 실력으로 특별한 무대를 선보인다.

일시장소 7. 16.(토) 오후 5시 축제극장 몸짓
입장료 전석 무료
관람연령 만 7세 이상
인터넷예매 www.ccart.kr
문의 ☎259-5869 / 5879



[춘천문화예술회관 기획공연]

유진규 마임 50년 '내가 가면 그게 길이지'

한국 마임의 산 역사인 유진규가 마임 인생 50년을 맞이했다. 한국 마임의 1세대로 일찍이 마임의 한계를 알고 작가주의적인 공연을 해 오고 있다. 작품에도 늘 새로운 시도를 해 왔지만 1998년 초연한 '빈손'은 한국적 마임의 전형으로 유럽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고, 공연예술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 설치공연 '빙' 시리즈도 많은 관심을 끌었다. 유진규는 그동안 우리의 몸짓을 실험해 만든 대표작들을 오늘의 관객과 함께 나눌 예정이다.

일시 7. 18.(월) 오후 7시 30분
장소 춘천문화예술회관
입장료 무료
관람연령 초등학교 이상
인터넷예매 www.cccf.or.kr
문의 ☎259-5822~4



봄내문화생활

[2022 신나는 오케스트라 교류연주회]

춘천지역 초등학생과 중학생으로 구성된 신나는 오케스트라가 아름다운 하모니를 들려준다.

한 여름밤에 펼쳐질 공연에서는 지역 기관과 함께하는 현악 앙상블, 예술가와의 협연으로 다채롭게 진행된다. 멘델스존의 '한 여름밤의 꿈 서곡 Op.21', 한스 짐머의 '캐리비안의 해적 OST', 비제의 '카르멘 모음곡' 등을 들려준다.

일시장소 7. 21.(목) 오후 7시 30분 춘천문화예술회관

입장료 전석 무료

관람연령 만 5세 이상 입장 가능

인터넷예매 www.cccf.or.kr

문의 ☎259-5437



[춘천시립교향악단] '실내악시리즈 I'

소극장에서 만나는 실내악 음악의 향연

이번 연주회에서는 현악 오케스트라로 구성된 앙상블의 연주를 통해 모차르트의 '디베르티멘토'와 슈베르트의 '론도 가장조 작품번호 438' 그리고 브람스의 '피아노 5중주 가장조 작품번호 34'를 선보인다.

또한 162회 정기연주회에서 함께한 바이올리니스트 김재원, 첼리스트 이정현, 피아니스트 일리아 라쉬코프스키가 출연, 관객들을 한 번 더 만날 예정이다.

일시장소 7. 21.(목) 오후 7시 30분 축제극장 몸짓

입장료 전석 1만원(춘천시민 30% 및 학생 50% 할인 등)

관람연령 만 7세 이상

인터넷예매 www.ccart.kr

문의 ☎259-5869 / 5878

[춘천문화재단 기획공연]

이야기가 있는 콘서트 'Morning Gallery July'

남춘천 역사 1층에 아담히 자리잡은 문화공간 역은 지난해 우리 품으로 찾아온 새친구 미술관이다.

지난해 춘천문화예술회관의 독창회로 화려하게 춘천 무대에 데뷔한 바리톤 고재선 또한 우리 지역에 터 잡은 새 친구 예술가이다. 문화공간 역에서 진행될 지역 작가들의 그룹전을 배경으로 지역의 성악가 고재선과 이효영의 아름다운 선율은 우리 고장을 찾는 모든 이를 예술로 맞이한다. 피아니스트 최한결도 함께한다.

일시장소 7. 27.(수) 오전 11시 남춘천 문화공간역

입장료 1만원(할인권증 있음)

관람연령 초등학교 이상 입장 가능

인터넷예매 www.cccf.or.kr

문의 ☎259-5822~4

[춘천문화예술회관 갤러리 문] 맨 처음 기억

버지니아 울프의 소설 '맨 처음 기억'을 바탕으로 춘천에서 활동하는 작가 3인의 예술세계와 철학을 그려내는 기획전시가 열린다. "그림은 말 없는 글, 글은 노래하는 그림"이라는 말처럼 서로 동질성을 가진 문학과 미술이 만나는 자리다. 강태호, 김선옥, 김효주 작가가 참여한다.

일시 6. 10.(금) ~ 8. 17.(수)

(공연 시작 1시간 전부터 2층 로비에서 관람 가능)

장소 춘천문화예술회관 2층 로비

입장료 무료 관람

문의 ☎259-5836



[시민 일러스트 & 디자인 작품 전시]

당신이 바라본 춘천, 당신이 떠올리는 춘천

우리가 생각하는 춘천은 어떤 모습일까. ‘도시디자이너 : 당신의 그림을 빌려주세요 III’ 사업을 통해 문화도시 춘천을 주제로 공모받은 지난 2년 동안의 시민 일러스트, 디자인 작품전이 열린다.

일시 7. 1.(금) ~ 31.(일) (매주 월요일 휴관)
장소 강원디자인진흥원 제 3, 4 전시실
문의 ☎259-5453



황지연 '봄 청춘 낭만 춘천'

[조동순 초대전]

우스꽝스러운 분장, 익살스러운 표정, 온몸을 통한 화려한 몸짓에도 뭐라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을 본다. 작가는 그의 눈동자를 통해 원초적 슬픔을 표현해 보고 싶었다고 말한다.

일시 7. 1.(금) ~ 31.(일)
장소 카페줄루(춘천순환로108)
문의 ☎262-2411



[김현신 요셉 제9회 사진 개인전]

그리움의 끝에는... 시즌3

“그리움’이란 인간이 영원한 본향을 찾아가는 여러 개의 징검다리라고 한다. 우리 일상의 소중한 기억, 잊고 싶은 많은 아름다움, 이 모든 것은 축복이며 내 삶의 기쁨이기에 징검돌 하나 놓는 마음으로 순간을 담는다.” 작가의 말 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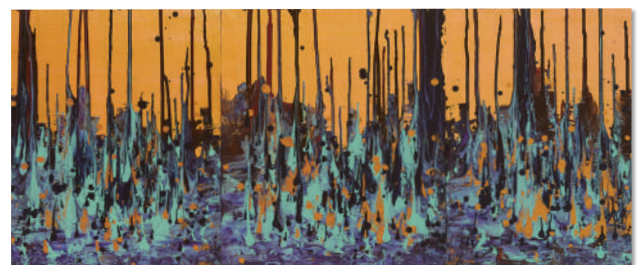
일시 7. 1.(금) ~ 8. 31.(수)
장소 갤러리 더웨이(신동면 풍류1기 72)
문의 ☎010-3896-6347



[김정현 개인전] Creative Energy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를 주제로 삼고, 작가 고유의 심리를 반영한 색과 기법을 모티브로 표현했다. 물감들이 중첩되어 또 다른 색이 되고, 하모니를 이루어 자연과 사람과 도구의 에너지와 만나 치유와 회복을 소망하는 작품들을 모아 전시회를 기획했다.

일시 7. 1.(금)~6.(수)
장소 춘천미술관 1층 전시실
예매문의 ☎010-7132-75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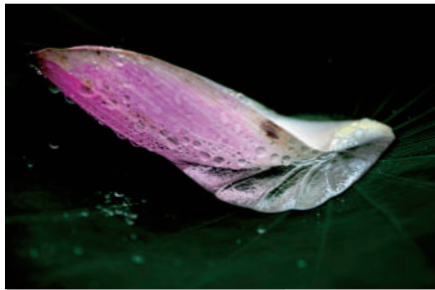


봄내문화생활

[최익화 개인사진전] 초연超然의 치유

작가는 평생 진흙 속에 살면서도 깨끗한 자태로 고귀한 꽃을 피워내는 연을 보며, 그 순수함과 신비로움이 어떤 수식어도 모자랄 만큼 전율로 다가왔다고 말한다. 연의 사실적이고 정형화된 형상에서 벗어나 깊이 있는 사유, 그리고 심상적 언어를 통해 연의 온화한 기운을 부각시키며 절제된 미를 표현했다.

일시 7. 12.(화) ~ 24.(일) (오프닝 7. 12. 오후 2시)
장소 갤러리 툰(애니메이션박물관 내 토이로봇관 3층)
예매문의 ☎010-54363-8731



[예술소통공간 곳 입주작가 전]

예술소통공간 곳 입주작가들과 지역 내 청년 작가들이 참여해 협력 전시회를 개최. 회화, 조각, 동양화 등 다양한 분야의 작품들을 선보인다.

전도유명한 청년 작가들을 대중과 문화예술계에 소개하기 위해 기획된 전시로, 작가와 관람객이 자유롭게 소통하는 '아티스트 토크'와 같은 부대 프로그램도 진행될 예정이다.

김민지, 김경원, 오세경, 이한나, 홍기하 등 예술소통공간 곳 입주작가 5인과 박예지, 송신규, 이수현, 제현모, 한선주 등이 참여한다.

일시 7. 14.(목) ~ 30.(토)
 (월요일 휴관, 오전 10시 ~ 오후 6시)
장소 춘천문화예술회관 전시장
문의 ☎259-5836



김민지 '비 오는 139km의 풍경14'



한선주 '미슈테카 판타지'

[강원미술시장축제 2022]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위축된 강원도 미술시장을 활성화하고 작가들의 지속적인 창작활동을 지원하며, 자생적인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미술시장축제가 열린다. 기존 미술관을 찾는 관객들은 물론 남춘천역을 오가는 춘천시민과 외국인들도 찾아와 자연스러운 소통의 장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일시 7. 15.(금) ~ 27.(수) (오프닝 7. 15. 오후 3시)
장소 문화공간 역
문의 ☎010-8827-7852



[제2회 춘천공감전]

지역예술인들의 복리 증진과 지속 가능한 작품 활동을 지원하며 지역민과 향유하고 문화예술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역의 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한 사회적협동조합 예술공감이 정기전을 개최한다.

일시 7. 15.(금) ~ 20.(수)
장소 춘천미술관 1층
문의 ☎010-2305-51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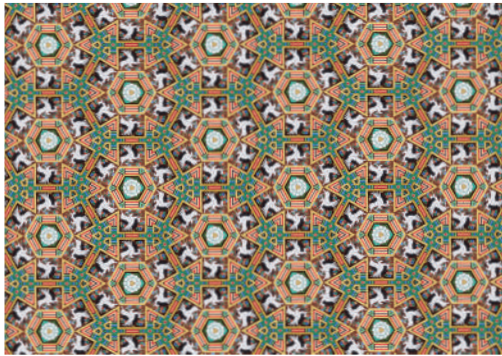


김수학 작

[길창인 사진전] 회귀

‘현상의 복제인 사진은 어떻게 예술로서 가치를 지닐까?’ 사진 기술이 세상에 처음 등장했을 때부터 존재한 해묵은 의문에서 시작된 이번 전시는 위 질문에 대한 작가만의 답변을 담고 있다. 사유 없는 복제는 그저 기술일 뿐이며, 예술적 가치를 담으려면 각자의 철학을 담아 자신만의 방식으로 증명해야 한다. 사진전 ‘회귀’에서는 위 질문에 대한 대담으로 본질로의 회귀를 이야기한다.

일시 7. 16.(토) ~ 30.(토)
장소 갤러리 상상언더
 (금강로86 마56호 지하상가 육림고개 방면)
문의 ☎010-7272-0440



[춘천미술관 기획전 3인3색] 커피 한 잔 할래요?

원영은, 주정순, 최덕화 3인의 작가가 삶의 힐링을 전달하는 한잔의 커피 같은 전시를 진행한다. 세 작가의 다양한 작품과 관객에게 전달하는 작품 참여의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영혼이 편히 쉴 만한 물가를 찾듯, 전시장을 방문해 주세요.”

일시 7. 22.(금) ~ 8. 3.(수) (오픈 : 7. 22. 오후 2시)
장소 춘천미술관 1층 전시실F
문의 ☎241-1856



[맥스 데스포 사진전] 6·25 잊혀진 전쟁(Forgotten War)

춘천문화원이 ‘2022년 전시공간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 (주)빅피쉬씨앤엠과 협업해 사진전을 개최한다. 당시 종군기자 맥스 데스포는 한국전쟁 발발 3개월 후인 1950년 9월부터 12월에 이르는 한국전쟁에서 가장 긴박했던 4개월을 기록했다. 인천상륙작전 이후 서울 수복, 평양 탈환, 중공군의 개입, 흥남 철수 등 한국전쟁의 역사적 순간을 만날 수 있다.

일시 7. 22.(금) ~ 8. 11.(목) 오전 10시~오후 5시
장소 춘천문화원 의암전시실
문의 ☎244-5106



[역아래 시민소통전] 썸머 페스타

남춘천역 1층 위치한 문화공간 역은 많은 시민이 지나다니며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문화예술 소통공간이다. 코로나로 모든 활동이 축소되며 시민과의 소통에 공백이 생겼지만,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면서 시민들과의 소통을 다시 시작해보려 한다. 이번 문화축제에서는 작가 30인의 작품 60여 점 전시와 공연 행사, 예술 장터 등이 진행된다.

일시 7. 29.(금) ~ 8. 18.(목)
장소 문화공간 역
문의 ☎252-0731



봄내문화생활

[6월 지역대표 문화예술 상설공연]

올해 춘천 곳곳에서 700여 회의 공연이 열린다.
 춘천인형극제, 춘천마임축제, 춘천연극제 등 춘천의 대표적인 축제와 버스킹이 중심이 돼 소규모 상설 공연을 여는 것. 매달 열리는 춘천의 문화예술 상설 공연을 모아 소개한다.



인형극

문의 242-8452

일 시	공연명	장 소
7. 2.(토) 14:00 / 15:45	금설복합예술소 '크락션'	춘천 인형극장 (광장)
15:00 / 16:30	오연주 '동굴납작 어느 씨앗이야기'	
7. 9.(토) 14:00 / 16:30	오연주 '동굴납작 어느 씨앗이야기'	
15:00	유상통프로젝트 '싸운드써커스'	
7. 16.(토) 14:00 / 15:45	간세쟁이 '지구를 지켜라'	
15:00 / 16:30	인형꾼배시시 '나무를 삼는 펭귄'	

마임

문의 242-0585

일 시	공연명	장 소
7. 27.(수) 19:30	'환상공간' 외 1	공지교 ~ 효자교 산책로

연극

문의 241-4345

일 시	공연명	장 소
7. 7.(목) 19:00	움직이는자 in 강정균	석사천
7. 9.(토) 14:00	신나는 빨강모자와 친구들	봄내극장
7. 14.(목) 19:00	미술극 '심청'	석사천
7. 21.(목) 19:00	오리대왕	석사천
7. 30.(토) 14:00	연희는 방구왕	봄내극장

[제34회 춘천인형극제]

코코바우 스테이지

춘천인형극제의 본 무대 코코바우 스테이지가 시작된다.
 미술쇼보다 놀라운 미술쇼 '크로키키 브라더스'부터 바닷 속 심청이의 이야기 창작집단 금도깨비의 '인어 심청전'이 공연된다.

장소 춘천인형극장
문의 ☎242-8452

* 티켓 예매 및 자세한 정보는
 '춘천인형극제' 홈페이지 참고



크로키키 브라더스
 7. 9.(토)~10.(일)
 주말 11시, 16시



창작집단 금도깨비 '인어심청전'
 7. 12.(화)~16.(토)
 평일 10시 30분, 19시 30분
 주말 11시, 16시

* 코로나19 및 주최 측 사정에 따라 세부 내용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2022 춘천연극제]



축제는 끝나지 않았다!

2022 춘천연극제가 봄내극장과 석사천 등 춘천시 전역에서 137일간 진행된다. 춘천연극제는 봄내극장, 야외공연장, 산책길에서 관객들과 함께 웃고 호흡하며 3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춘천시민을 웃고 울게 만들었다.

‘코미디 경연작’을 보며 박장대소하고 ‘초청작’을 관람하며 가슴 뭉클한 미소를 짓기도 했다.

또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친구들 손 잡고 나온 석사천 산책길에서 마주한 신기하고 재미있는 공연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박수를 치기도 했다.

춘천연극제 유튜브 등을 통해 랜선연극제가 진행되고 있으며, 7월에는 코미디 경연작 등 2022 춘천연극제의 본 공연이 쏟아진다. 오는 10월까지 축제의 열기와 재미와 감동, 의미 있는 웃음이 이어질 예정이다. 축제 일정 중 7월 행사를 소개한다.



일시장소 6. 15.(수) ~ 10. 29.(토) 봄내극장, 석사천 등 춘천시 일원

입장료 초청작, 코미디 경연작, 가족극 2만원(카카오톡 채널 1:1 채팅으로 예매, 장애인, 65세 이상 50% 할인)

문의 ☎241-4345

일 시	공연명	장 소	비 고
7. 2.(토) 15:00 / 19:30			
7. 3.(일) 15:00	‘이장’	봄내극장(유료)	초청작
7. 4.(월) 19:30			
7. 13.(수) 19:30	‘곡예사’	교대부설초등학교(무료)	
7. 15.(금) 19:30	‘뮤지컬 집들이 콘서트’	카페 38마일(무료)	살롱공연
7. 20.(수) 12:00	‘하모나이즈’	한국고용정보 라운지(무료)	
7. 16.(토) 16:30 / 19:30	‘나쁘지 않은 날’		
7. 18.(월) 16:30 / 19:30	‘그대는 봄’		
7. 20.(수) 16:30 / 19:30	‘춤추는 상어’		
7. 22.(금) 16:30 / 19:30	‘소심한 가족’	봄내극장(유료)	코미디 경연작
7. 24.(일) 16:30 / 19:30	‘한여름밤의 꿈처럼’		
7. 26.(화) 16:30 / 19:30	‘임금일’		
7. 28.(목) 15:30 / 18:30	‘한여름밤의 꿈’		





친환경 가지 농사를 짓는 황정자, 김광림 부부

“손주 녀석이 먹는데 친환경 포기 못하죠”

차로 가면 쉽고 빠른 길을 굳이 걸어서 다닐 때는 이유가 있다. 환경에도 좋고 몸에도 좋기 때문이다. 친환경 농사도 마찬가지다. 농약 좀 뿌리면 쉬울 일을 풀과 싸우고 벌레와 싸우며 한 번에 될 일을 일곱 번 여덟 번 고생한다. 동산면 금병산 자락에서 오늘도 구슬땀을 흘리며 친환경 농사를 짓는 김광림, 황정자 부부를 만났다.

글 김선순 · 사진 이원일 명예시민사진가

55가지 품목 무농약농산물 인증받아

비닐하우스가 아닌 노지에서만 잘 자라 친환경 농사가 어렵다는 가지. 그래서인지 춘천에서 가지를 대표작물로 등록해서 친환경인증(무농약농산물)을 받은 농가는 단 3곳뿐이다. 그중 동산면 원창고개 금병산 자락에서 40년 넘게 농사를 짓고 있는 김광림, 황정자 부부를 만났다.

부부는 대표작물을 가지로 해서 55가지 농산물에 대한 친환경인증을 받았다. 몇 년 전까지 복숭아 농사를 지었는데 금병산이랑 가깝다 보니 새들이 너무 많아 과수를 하도

파먹어서 채소류로 작물을 바꾸었다.

“친환경 농사를 하게 된 이유는 요즘 추세 때문이었어요. 매스컴에서 하도 친환경, 친환경 하니까 아, 이제 친환경이 대세구나 생각했지요.”

농사일로 햇볕에 검게 그을린 김광림 씨의 말이다.

부부가 가지 농사를 짓는 땅은 약 300평이다. 올해는 가문 데다 아침저녁으로 기온이 낮아 작물이 잘 자라지 않는다고 걱정을 했다. 친환경 농사는 토양이 좋아야 하는데



▲ 가지꽃이 잘 피면 가지 열매가 잘 자란다고 한다.
▲▲ 말려서 조물조물 무쳐 나물로 먹어도, 구이나 튀김으로 먹어도 맛있는 가지

비료값도 110%나 올랐다고 한다. 그마저도 무농약 농산물은 일반 거름 양의 1/3 이내만 허용이 돼 마음대로 뿌릴 수도 없다고 한다. 약 치는 일도 일반 농약 한 번 치면 될 일을 7~8번 쳐야 한다. 그 역시 잘 듣지 않는다. 허구한 날 풀 뽑고 벌레 잡는 일에 시간을 들여야 한다.

친환경 농사 까다로워 때려치우고 싶지만

마음 같아서는 친환경 농사를 때려치우고 싶다는 부부에게 “정말 그러고 싶겠어요”라고 말했더니 “손주 녀석이 맨날 찾아와서 할아버지 오늘은 뭐 키웠어?”라고 물어보는데 어떻게 친환경 농사를 포기하냐고 말한다.

“손주 녀석이 어린데 채소를 얼마나 잘 먹는지 몰라요. 가지를 데쳐서 조물조물 무쳐주면 너무 잘 먹어. 아이들이 가지 싫어한다고 학교 급식용 가지 주문이 적게 들어오는데 요리하기 나름이에요. 가지를 들기름에 구워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다고요. 손이 좀 가서 그렇지 가지 튀김도 맛있잖아요?”

부부가 기른 가지는 서울 농수산물 시장과 (재)춘천지

역통합먹거리지원센터 그리고 로컬푸드 직매장으로 들어가는데 학교 급식에 들어가는 가지 수량은 많지 않아 아쉽다고 황정자 씨가 말했다.

금병산 맑은 정기 받은 농산물

“우리 농장은 금병산 300고지 능선에 있어서 일반 평지보다 평균기온이 3~5℃ 정도 낮아요. 그래서인지 싱싱함이 오래가 농산물 보관 기간이 평균 3~4일은 더 길어요.”

황정자 씨가 뿌듯함을 감추지 않고 말했다.

가지는 5월에 모종을 심으면 6월에 꽃이 피고 7월부터 10월 서리 내리기 전까지 열매를 수확할 수 있다.

“꽃이 잘 피면 열매도 좋아요. 올해 꽃이 잘 피길래 가지 농사가 잘 되겠구나 하는데 두고 봐야죠. 친환경농산물이 일반 농산물보다 왜 비싼지 한 번 짚은 들여다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노력한 만큼 정당하게 값을 받고 싶다는 황정자 씨의 소망이 꼭 이루어지도록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관심과 소비를 바란다. 



단열 페인트 시공을 한 춘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옥상. 협의회 직원들과 춘천시 교통환경국, 교통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이 손을 흔들고 있다.

전기요금 낮추고 지구도 식히고 ‘시원한 여름’

기상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연평균 기온은 1980년대 12.2°C, 1990년대 12.6°C, 2000년대 12.8°C, 2010년대 (2011~2017) 13.0°C로 지구온난화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춘천 역시 연평균 기온이 계속 상승 중이며 특히 여름철 기온이 높아 폭염 일수와 열대야 일수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한국기후변화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춘천의 평균 최고 기온과 평균 최저 기온 모두 약 2°C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에 따라 기온이 오르락내리락 하지만 전반적으로 지구온난화를 피해가지 못하는 모습이 수치상으로 확연히 보인다.

굳이 수치를 보지 않더라도 강력해지는 자외선과 에어컨 없이 지내기 힘든 체감 온도가 지구온난화를 실감케 한다. 지구온난화는 해수면 상승, 이상기후, 대기오염, 생태계 파괴 등 돌이킬 수 없는 불행을 예고한다. 더운 여름,

실내 온도와 도시의 온도를 낮추고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 몇 가지를 소개한다.

〈지난 10년 간 춘천 기온 변화표〉

연도	평균 기온	평균 최고 기온	최고 기온	평균 최저 기온	최저 기온
2012	10.7	16.5	36.8	5.5	-23.1
2013	11.1	16.7	33.6	6.2	-23.1
2014	12.1	18	35.1	7	-20.1
2015	12.5	18.4	35.9	7.3	-15.7
2016	12.4	18.2	35.7	7.4	-20.1
2017	11.7	17.6	36.3	6.4	-17.6
2018	11.6	17.6	39.5	6.4	-21.6
2019	12.3	18.3	36.3	7.1	-14.1
2020	12.2	18	36.4	7.1	-17.2
2021	12.4	18.4	36.6	7.3	-21.9

* 평균 최고 기온 날마다 측정된 최고 기온의 평균값
평균 최저 기온 날마다 측정된 최저 기온의 평균값

태양열 반사해 실내온도 낮추는

단열 쿨링 페인트

건물 지붕이나 옥상을 밝은 색상의 단열 페인트로 칠하면 태양열이 반사돼 건물의 온도가 낮아진다. 단열 페인트 시공은 실내온도를 약 2~4℃ 낮춰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건물 옥상의 태양열을 반사해 도시의 온도까지 낮춰준다. 도시열섬 현상이 완화되는 것이다. “얼마 전에 옥상에 단열 페인트 시공을 했어요. 건물 1층에 경로당이 있어서 경로복지관에서 옥상 방수 시공을 마친 후 일반 녹색 페인트가 아닌 흰색 방열 페인트를 칠했죠. 방열

페인트를 칠한 후 실내온도가 확연히 낮아졌어요. 지난해 이맘때는 더워서 에어컨을 틀어야 했는데 지금은 에어컨을 틀지 않고 있어요.”

춘천시속가능발전협의회 김상진 팀장의 말이다. 김 팀장은 폭염 취약 계층인 아이들과 어르신들을 위해 학교나 경로당부터 단열 쿨링 페인트를 칠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쿨링 페인트는 기존 아크릴 페인트보다 가격이 비싸지만 쿨링 페인트 시공으로 인해 절감되는 냉방비용을 감안하면 충분한 가치가 있다.

공기 순환 도와 시원한

천장 실링팬(천장형 선풍기)



천장에 다는 커버 없는 선풍기인 천장 실링팬도 실내 온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 여름철에 에어컨과 함께 실링팬을 사용하면 바람이 골고루 돌아가 실내 온도를 빨리 낮출 수 있다.

천장 실링팬은 크기와 성능, 디자인에 따라 몇만 원대부터 몇십만 원대까지 다양한데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손쉽게 구매할 수 있고 직접 설치도 가능하다.

소음이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지만 인위적인 선풍기 바람보다 자연 바람에 가까워 시원하고 산뜻하다는 평이 많다.

전기요금 절약해주는

에어컨 실외기 커버



에어컨은 실외기를 통해 유입된 공기를 냉각기를 통해 시원한 바람으로 제공하는 원리다. 따라서 실외기가 시원할수록 전기요금이 줄어든다. 우리가 양산을 쓰면 햇빛이 차단되고 시원해지는 것처럼 에어컨 실외기도 덮개를 덮어주면 온도가 낮아져 에너지 절약에 도움이 된다.

단, 실외기가 옥상 등 안전한 곳에 있으면 문제가 안 되지만 아파트 베란다 등 낙하 위험이 있는 곳에 있을 경우 안전한 재료로 날아가지 않게 조심해서 설치해야 한다. 요즘은 시판 실외기 커버도 잘 나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쉽게 구할 수 있다.

글 김선순 · 자문 한국기후변화연구원, 춘천시속가능발전협의회

춘천의 ECO 제로웨이스트

“빨대는 빼주세요.” “종이 영수증 안 주셔도 돼요.” “장바구니 들고 왔어요.” 자주 들을수록 좋은 말이죠. 이제 텀블러를 들고 다니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 됐어요.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제로 웨이스트(Zero Waste)’ 문화가 생활에 스며들고 있다는 뜻일 겁니다.

쓰레기를 만들지 않기 위해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멋진 카페나 정육점도 있고, 캔과 페트병을 분리해 배출하면 포인트를 주는 무인수거함도 있습니다. 용기를 들고 가면 세제를 소분해 주는 곳까지... 깨끗한 춘천을 만드는 데 동참하고 있는 멋진 곳들을 소개합니다.



의양로
근화동행정복지센터 29

17 강남동(공지천 클린하우스)

강남동(헤어메이드 옆 분리수거함) 18

5 로하스카페나비(세제소분)

동춘천역
소양동행정복지센터 27

어쩌다농부(일일용기 배달) 8
약사명동행정복지센터 28

35 강남동행정복지센터

살롱드 노마드(카페) 7

23 신사우동행정복지센터

강원도청

아름다운가게 시청 팝업샵 2 춘천시청 26

1 사농동꿈마루도서관(자원회수·세제소분)

30 효자1동행정복지센터

34 퇴계동행정복지센터

한림

아름다



제로웨이스트가게

1. 사농동꿈마루도서관(자원회수·세제소분) | 영서로 2920
2. 아름다운가게 시청 팝업샵(춘천시청 1층서 7월 한달간 운영) | 시청길 11
3. 보나커피집 | 교동길 18
4. 어거스트(카페) | 춘천순환로 44
5. 로하스카페나비(세제리팔샵) | 철전서1길 21

용기 내 환영 가게

6. 후평동두부만드는사람들 | 후석로 336 1층
7. 살롱드 노마드(카페) | 서부대성로 87
8. 어쩌다농부(밀짚옹기 배달) | 중양로 77번길
9. 파파스컷(정육점) | 동내면 춘천순환로 61-15 1층
10. 장손반찬 | 영서로 2151번길 6-1

재사용 중고가게

11. 아름다운가게 춘천석사점 | 퇴계로 187

투명페트병 별도배출함 시범 설치 지역

12. 동면(동면교 옆 분리수거함) | 뒷들길 4
13. 교동(교동초등학교 앞 언덕 클린하우스) | 춘천로 213번길 28
14. 후평동(후평3동 클린하우스) | 세실로 208번길 4
15. 효자동(과학꿈나무공원 분리수거함) | 서부대성로 206번길 19
16. 약사명동(육림고개 정삼 클린하우스) | 중양로 77번길 38
17. 강남동(공지천 클린하우스) | 수변공원길 18
18. 강남동(헤어메이드 옆 분리수거함) | 터미널길 14
19. 석사동(현이마트 앞 분리수거함) | 애막골길 20번길 27
20. 퇴계동(퇴계유통 앞 클린하우스) | 춘천순환로 72번길 67
21. 석사동(춘일교회 뒤 분리수거함) | 안마산로 338

캔, 페트병 무인자동수거기 설치

22. 신복읍행정복지센터 | 신복읍 읍문길 5
23. 신사우동행정복지센터 | 사우4길 8
24. 한림대 | 한림대학길
25. 후평3동행정복지센터 | 후만로 3
26. 춘천시청 | 시청길 11
27. 소양동행정복지센터 | 금강로 7
28. 약사명동행정복지센터 | 망대길 9
29. 근화동행정복지센터 | 영서로 487
30. 효자1동행정복지센터 | 효자상길 9
31. 석사공원 | 석사동 31
32. 동내면행정복지센터 | 동내면 동내로 8
33. 석사동행정복지센터 | 후석로 8
34. 퇴계동행정복지센터 | 퇴계로 6
35. 강남동행정복지센터 | 온의동 -37

* 다음 춘천문화지도는
'노거수(수령이 많고 커다란 나무)'입니다.

관련 장소를 7월 10일까지 메일로 보내주세요.

E-mail_ bomnae1993@daum.net

2022년 7월호

궂은 날씨, 미세먼지도 OK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내다

2, 7일 오일장이 열리는 춘천 풍물시장. 몇 년 전 춘천 풍물시장에 대형 아케이드가 생긴 이후 비가 오거나 뜨거운 해가 내리쬘어도 장 보는 것이 수월해졌다. 현대파크가 2019년 풍물시장 현대화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아케이드를 완공한 뒤부터다.

글 안선희 · 사진 이원일 명예시민사진가

춘천 유일 막구조물 전문기업

현대파크(대표 원태환)는 2009년 정선 증산농공단지에 서 설립, 2015년 남산면 창촌농공단지로 이전해 지금에 이르고 있다. 설립 초기 조정·하천 보수 전문기업으로 시작해 현재 ‘막구조물’ 설계·제작·시공 전문기업으로 성장했다. 춘천에 있는 유일한 막구조물 전문기업이기도 하다.

‘막구조물’이라는 용어가 생소하지만, 주위를 둘러보면 친숙하기 이를 데 없다. 예전에는 파고라 형식의 그늘막이 주요 제품이었다면, 최근에는 군부대 시설물과 학생들이 사용하는 체육관까지 그 쓰임새가 확장되고 있다.

재래시장의 아케이드부터 게이트볼장, 실내체육시설, 관람석, 본부석 등의 체육시설물은 쉽게 만나볼 수 있는 막구조물이다. 강변이나 해변, 공원에 설치된 야외공연장과 객석, 행사장 또한 막구조물로 지어진 경우가 많다. 그 외 주변 곳곳에 설치된 그늘막과 주차장, 매표소 등도 막구조물로 이뤄져 있다.

그늘막에서 실내 체육시설까지 활용도 높아

창촌농공단지로 이주한 것은 공장 인프라가 잘 구축돼 있고 수도권과 가까워 영업이 쉬운 이유가 컸다. 원태환 대





공장에서 접합 작업을 하는 직원들(사진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순), 회사 전경, 현대파크에서 설치한 풍물시장 아케이드, 원태환 대표.

표는 “철원, 화천, 인제, 양구, 홍천 등이 가깝고 고속도로가 개통된 이후 영동지방인 속초나 양양, 고성으로 가는 것도 쉬워져 작업이 편해졌다”며 창춘농공단지의 장점을 설명했다. 원 대표는 춘천은 시 단위 도시라서 전문인력이나 직원을 구하기도 쉽다고 덧붙였다.

사무실 포함, 5개 동에서 설계와 회계를 담당하는 사무 파트와 철골, 막제 등 생산 파트 직원 22명이 근무하고 있다. 디자인부터 생산까지 전 과정이 이곳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지난해 매출은 200억 원 정도를 기록했다.

현대파크는 지역을 가리지 않고 전국 단위로 공사를 하러 다닌다. 최근에는 게이트볼장이나 테니스장 등 체육시설 물 공사가 많은 편이다. 동절기나 비가 올 때도, 미세먼지가 나쁜 날에도 실내에서 운동을 할 수 있어 막구조물을 선호하는 경향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낮에는 불을 켤 필요가 없어 에너지 절감에도 효과가 있고, 주로 하얀색이나 밝은 색 구조물 덕에 야간 경관까지 좋아진다고 주민들이 반기는 경우가 많다.

막구조물 특허 확보·강원도유망중소기업 선정

비교적 단순해 보이는 구조물이지만, 설계와 시공은 복잡하다. 특히 막구조물 원단은 탄성이 있어야 하며, 접합할 경

우 적당한 텐션을 유지할 수 있게 당겨서 작업해야 하는 간소한 공정이 필요하다. 또한 물을 자연 배수시킬 수 있도록 설계를 해야 하는데, 현대파크는 이 부분에서 특허를 확보했다. 현대파크는 막구조물 원단도 별도 수입하거나 OEM 방식으로 주문, 국내 기준 규격을 상회하는 원단을 사용한다. 하자보수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기준을 높여 놓은 것.

춘천 풍물시장 아케이드 공사는 2019년 당시 국내 단일 공사로는 최대 규모로, 이를 조기 준공하고 기술력을 인정받았으며 강원도유망중소기업에 선정되기도 했다.

원 대표는 “막구조물 수명은 최저 20년입니다. 내구성이 좋고, AS도 가능하죠. 지금까지 샌드위치 패널로 많이 지어졌던 체육시설 등이 막구조물로 넘어오고 있어요. 장기적으로 보면 훨씬 경제적이기 때문”이라고 막구조물에 대한 정점을 나열했다. 이어 “사명 ‘현대파크’는 현대적인 공원을 만들겠다는 뜻을 담고 있어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그래서 시민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회사가 됐으면 합니다”라고 말했다. ●

주 소 남산면 보매기길 78
홈페이지 www.h-park.kr
문 의 261-8147

예술인에게 공간을 내주다

갤러리 동무 박미경 대표

남춘천여중 뒤편에 자리한 2층 건물. 문을 들어서면 머리맡에 ‘갤러리 동무’라는 이름표가 반긴다. 미술관이라고 하기에는 소박하지만 화가의 작품을 자주 만날 수 있는 곳이다. 그림 전시회는 물론 시 낭송도 하고 때로는 출판기념회, 공연 장소로 예술의 향기를 제공한다. 예술인과 이웃들이 지친 일상을 풀어놓는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는 ‘갤러리 동무’.

이곳은 주인장 박미경 씨가 자신의 건강식품 매장 한쪽을 무료로 제공해 예술인들의 사랑방이 되고 있는 곳이다.

이곳이 예술인들의 사랑방이 된 데는 사연이 있었다. 박 씨는 사업을 운영하면서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공연과 전시장 등을 찾았다. 그리고 전시회를 마친 작가를 만나고 작품이 창고에서 갇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던다. 그래서 전시가 끝난 작품을 이곳에 다시 전시하여 이웃들도 부담 없이 즐기도록 전시공간을 제공하게 되었다는 것. 다른 곳에서 전시회를 마친 작가에게 또 한 번의 전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4년 전 이광택 화가를 시작으로 문을 열었다. 그동안 갈대 작가로 불리는 김춘배 화가, 조각가 빅터조 등 30여 회의 전시회를 개최한 문화공간이다. 미술 전시는 물론 시 낭송과 노래도 어우러졌다.

내 안의 ‘끼’를 어찌하오리까 진행

자신의 공간을 내주는 데 특별한 제한이 없다고 말하는 박 씨. 예술의 맛을 즐기던 그가 이곳에서 자신도 참여하는 새로운 만남을 계획하고 있다.

‘내 안에 꿈틀이는 끼를 어찌하오리까’라는 프로그램이 바로 그것이다. 차 한잔 나누고 예술의 끼를 풀어 놓을 수



자신의 건강식품 매장 한쪽을 전시 및 공연 공간으로 내주는 박미경 씨

있도록 준비했다. 7월 5일부터 8월까지 매주 1회 연극 활동에 참여하도록 했다. 전문예술인이 아닌 이웃들이 ‘이수 일과 심순애’, ‘유정의 녹주 사랑’ 등의 연극에서 변사와 연기자의 끼를 발산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10명 내외의 이웃과 함께 예술을 통하여 편견 없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만남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기 위한 무대이다.

박미경 씨처럼 공간을 나누는 주인장들이 더 많아진다면 문화도시 춘천이 거듭나지 않을까. 혼자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예술을 함께 누리는 것이야말로 문화도시 춘천의 본모습이 아닐까. 자신의 끼를 찾아 삶의 위로를 얻을 수 있기를 박 씨는 오늘도 소망하고 있다.

글 · 사진 이종현 명예시민기자

화폭에 담긴 강원도의 비경을 찾아

『와유산수』 저자 김남덕 강원일보 사진부 부국장

지역민들이 십시일반 뜻을 모으고 현직 사진기자가 직접 발로 뛰며 생생한 자연의 감동을 전달하는 지역 이야기 책 『와유산수 臥遊山水』가 출간됐다.

『와유산수』는 겸재 정선, 복원 김응환, 단원 김홍도, 설호산인 김하종 등 조선의 내로라하는 화원들이 그린 산수화 50여 점의 배경지를 10여 년간 직접 발품을 팔아 이야기로 풀어낸 책이다.

저자는 강원일보 사진부 부국장인 김남덕 씨. 그는 강원도를 비롯, 충북 담양, 경북 울진, 포항, 울주군 등 산수화에 등장하는 장소를 직접 다니며 카메라에 담았다고 한다. 그는 “조선의 화원들이 가장 많이 화폭에 담아낸 곳은 단연 강원도 지역이 많았다”면서 강원도의 숨은 명소를 알리고자 고군분투했던 날들을 회상했다.

그가 가장 기억에 남는 장소로 꼽은 곳은 단원 김홍도의 ‘해동명산 도첩’ 중 19번째 그림인 ‘낙산사 洛山寺’다. 김홍도가 내려다보며 그렸을 나무들이 아직도 그 자리에 있는 것이 가장 인상 깊었다고 한다.

십시일반 뜻 모아 출간된 책

이 책이 출간된 의미는 남다르다. 저자는 대학교수들이 은퇴할 때 산더미처럼 쌓인 책들을 버리는 걸 보고 ‘저 책들을 한데 모아 지식을 함께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그러던 중 뜻을 함께 하는 회원 11명이 모였고, 지난해 6월 춘천시청 옆 옥천길에 협동조합 공유책방 ‘본책’이 문을 열었다. 이 책은 1주년을 맞이한 협동조합 공유책방 본책에서 출간한 책으로, 100명이 넘는 춘천시민들이 펀드를 조성해 선구매하는 방식으로 출판한 한 뜻깊은 책이다. 그에 따르면 좋은



직접 발품을 팔아 강원도의 비경을 책에 담은 김남덕 씨



책을 만들기 위해 ‘십시일반’ 뜻을 모아 출간한 만큼, 앞으로도 계속 이 문화를 이어 나갈 예정이라고 한다. 또한 저자는 ‘본책’의 이사직을 맡으며 한 책을 모아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지역의 작가를 비롯한 다양한 문화활동을 시민들에게 연결하고 싶다고 했다.

한편, 『와유산수』 출판과 관련해 지난 6월 4일 후평동 ‘공간 제로’ 갤러리에서 출판기념회를 열었으며, 같은 달 1~12일에는 ‘공간 제로’에서 사진전을 열어 춘천시민들과 함께 했다. 이어서 7월 1~20일에는 강릉 한국여성수련원 갤러리에서 사진전이 열린다.

글 박희준 명예시민기자 · 사진 본인 제공

약사천이 고향입니다

약사천에 등지 뜬 흰뺨검둥오리 가족

3주 전 나에게 달삭가족을 처음 소개한 이는 수변공원 오디나무 그늘에서 하천 쪽을 노려보던 삼무늬 길고양이였다. 뭔가를 노리는 녀석의 행동이 수상하여 물가 쪽을 바라보는 순간 ‘후드득’ 갈풀 속에 쭈그렸던 오리 새끼들이 튀어나왔다.

갈색 설탕으로 솜사탕을 만들면 저런 모습일까. 짹짹거리며 엄마를 쫓는 열 마리의 새끼 오리 덕분에 하천은 금세 북새통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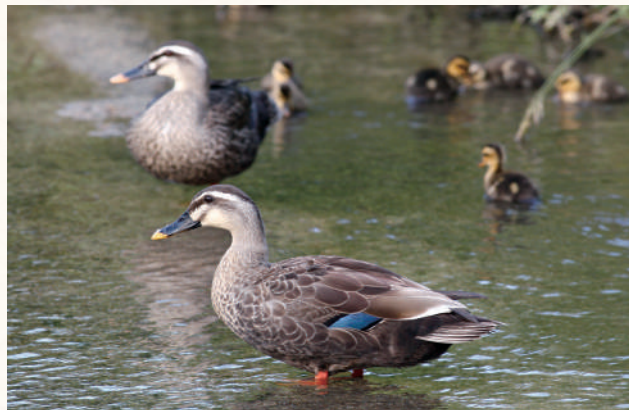
걸음을 멈춘 시민들은 저마다 약속한 듯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한다. 얼굴에 행복한 미소를 한가득 품고 말이다.

가을쯤 시베리아나 몽골을 출발한 흰뺨검둥오리는 아시아 전역에서 월동을 하며 다음 해 봄까지 번식을 위한 짝을 찾는다. 3월이면 부부가 된 쌍은 암컷의 고향으로 되돌아가는데 약사천의 달삭 가족처럼 월동지에 눌러앉는 경우도 종종 있다. 달삭은 내가 임의로 붙인 오리가족 이름이다.

부부는 마른풀로 땅 위 둥지를 만들고 부드러운 깃털을 내어 안쪽을 마감한다. 암컷은 한 번에 10개 내외의 알을 낳고 24일쯤 품으면 부화가 되는데 병아리들은 태어난 지 이틀이면 헤엄치고 달리기 시작한다. 어미의 보살핌을 받는 두 달 동안 새끼오리들은 먹이를 찾는 방법과 잠수, 비행을 배우며, 겨울이면 번식능력을 갖춘 성체로 자랄 것이다.

10마리 모두 건강하게 잘 커

나는 이후로 매일 두 번씩 달삭 가족을 찾았다. 어미 새는 새끼를 이끌고 하천을 왕복하는데, 작은 텃세권을 형성하며 소무리 생활을 하는 약사천의 오리들도 달삭 가족의



5월 20일 경의 달삭 가족.
(대부분의 오리가 그러하듯) 며칠 후 아빠 오리는 가족을 떠났다.



6월 12일의 달삭 가족. 깃털이 완전히 자란 새끼오리들.

행렬엔 시비하지 않았다.

자연 생태계에서 흰뺨검둥오리의 생존율은 15% 내외라고 하지만, 달삭 가족의 엄마는 단 한 마리의 소실 없이 10마리의 새끼를 지금까지 건강하게 키우고 있다. 수척해진 어미 오리의 모습에 경외와 몽클한 안쓰러움이 밀려든다.

오리 가족은 부지런히 꽃가루를 나르며 씨앗을 퍼트리고 벌레의 유충을 잡아먹으며 복원된 하천의 생태계에 에너지와 양분을 순환시킨다. 생존을 위한 지극히 기능적인 모습과 노랫소리가 우리에게 기쁨과 위안을 주며, 더 나은 어른이 되라고 충고하는 것 같다.

글 · 사진 양희중 명예시민기자

품앗이부터 봉사까지... 온정을 나눴어요

신북농협 농가주부모임

녹음이 우거지고 초록이 짙어지는 계절이 온 듯한 요즘, 제법 뜨거워진 아침별을 목 뒤로 느끼며 옛 춘성군 자리에 위치한 신북읍 유포리의 한 논밭을 찾았다.

한쪽에서는 모내기가 한창이고 옆 밭에서는 밭고랑마다 한 명씩 줄을 서서 옥수수 알갱이 심기가 한창이었다. 아침부터 뜨거운 햇살 아래 부지런히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이들은 신북농협 소속 농가주부모임 회원들이다. 신북농협 농가주부모임은 1992년부터 시작한 신북읍 일대 농가주부들의 모임이다. 서른 명이 조금 넘는 이 모임은 평소에는 각자의 논밭에서 일을 하며 서로 품앗이도 해주고 사이좋게 지내고 있다.

그런데 올해 유포리에 농사를 짓지 않는 빈 논이 생겨 함께 좋은 일을 도모해 보기로 했다.

“유포리 강원도농업기술원 옆으로 강원도농산물 원종장이 이전 예정이에요. 이전 공사가 10월 착공 예정인데 그 전에는 농사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농사짓는 사람 입장에서 땅이 놓고 있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농사를 지어서 좋은 데 써도 되냐 물어보니 된다고 해서 의기투합했죠.”

신북농협 농가주부모임 유명연 회장의 말이다. 농가주부모임은 이 땅을 몇 달간 빌리는 형식으로 10월 전까지 농사를 짓고 수익금과 수확물을 주변의 이웃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유명연 회장은 자신의 밭 일부를 옥수수 농사를 짓는 데 보냈다.

모내기 후 작은 잔치도 열어

신북농협 농가주부모임은 지난 30년간 농촌의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가서 손을 보태거나 매년 겨울철 김장을 함



어려운 이웃을 위해 온정을 베푸는 신북농협 농가주부모임



모내기와 옥수수 심기 후 작은 잔치를 열었다.

께 담그고 또 취약계층이나 어려운 이웃들에게 밑반찬을 만들어 전해주는 등 지역 곳곳에 온정을 나눠 왔다.

이날 농사일을 마치고 푸짐한 잔치가 벌어졌다. 밭고랑 옆에 돛자리를 깔고 직접 쏘 콩물에 직접 삶은 국수로 콩국수를 말아먹고 수박, 취떡 등 맛있는 음식들이 내어졌다.

“코로나19로 2년 동안 회원들이 잘 모이질 못했어요. 그동안 각종 봉사 등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제대로 한 번 놀지도 못하고 해서 오랜만에 회포를 풀 겸 작은 잔치를 준비했죠.”

유명연 회장과 회원들의 웃음소리가 퍼져 나가는 유포리는 그야말로 살기 좋은 내 고장이 여기로구나 함을 실감나게 했다.

글 · 사진 이재민 명예시민기자



**몸도 마음도
튼튼한 서아, 재아에게**

사랑하는 우리 가족 항상 사진처럼 웃으면서 지낼 수 있기를 바라. 서아와 재아가 아빠 엄마 곁에 와줘 너무 고마워!
어느덧 어린이집에서 초등학교까지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자라주는 서아, 재아~ 사랑해!

✉ **아빠 이태형, 엄마 장기일**



사랑하는 도윤아, 시윤아~

엄마 아빠가 먹이고 재우고 씻기던 꼬물꼬물
작은 아기들이 언제 이렇게 컸는지 새삼 놀랍구나.
지금은 생각이 쑥쑥 자라 자기 의견도 잘 말하고
행동하면서 엄마 아빠와 투닥거릴 때도 있지만
우리는 항상 너희들을 사랑하고 응원하고 있다는
걸 알아줬으면 해.^^
나중에 더 커서 이 글을 보고 나는 이렇게 사랑받고
자란 아이구나 느껴주길 바라며,
엄마 아빠에게 와줘서 고마워♥

✉ **아빠 경규남, 엄마 이소진**

예인이 태어나~

예인이 누나가 고등학생 때 막내 태영이가 태어나기 전에
 춘천에 놀러 와서 오리배를 탄 적이 있었다.
 예인이는 기억나지? 즐거운 추억을 간직하게 해 준 도시.
 춘천에 우리가 이사를 와서 살게 되었네.
 소양강에 다시 가 그때를 추억하며 다시 탄 오리배.
 누나랑 같이 탄 오리배 재미있었지?
 나중에 쌍둥이 형들이 군에서 휴가를 나오면
 우리 그때는 다같이 케이블카 어때?
 너희들이 있어서 엄마 아빠가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잊지 말길 바라. 사랑한다. 우리 딸 아들들!!

✉ **아빠 윤선용, 엄마 오은지**



4월 20일날 입양된 담비예요!

처음에 3.3kg으로 집에 왔는데 지금은 5.5kg까지 몸무게
 도 늘고 짧고 양증맞던 다리, 허리, 주둥이도 길어졌어요.
 배변도패드 깔아놓으니 알아서 척척.
 계속 갇혀 있던 기억 때문인지 처음에는 켄넬에 들어가는
 것도 무서워했는데 지금은 하우스 하면 켄넬에도 쏙 잘 들
 어가는 멋진 개린이가 되었답니다.
 언니, 오편랑 매일 티그놀이도 하고 산책하고 애견운동
 장도 가고 재미있게 놀면서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어요.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운 담비 덕분에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 **담비 반려가족 안수빈**



우리 가족 이야기(반려가족 포함)를 사진과 함께 bomnae1993@daum.net 메일로 보내주세요.

채택된 분에게는 소정의 원고료(5만원)를 드립니다.

보낼 내용

아이 이름, 부모 이름(반려동물 이름, 보호자 이름) 출생년월일(입양년월일) 주소, 핸드폰 번호, 계좌번호

가족 소개글(또는 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 * 당월 게재된 가족에게는 봄내 소식지 3부를 우편으로 보내드리니 가족과 함께 나누세요.

애들아 나오너라 달 따라 가자

- 의암리 장미마을로 가는 길

유혹

대원사는 고요하다.

아침 햇살이 구름 사이로 내뿜는 날, 우린 드림산 초입에서 개다래나무를 발견한다.

누가 초록 앞에 흰 페인트칠을 해 놓았을까.

참으로 재미있는 나무지요?

조각가이자 다인(茶人)인 숲해설가 이형재 님. 그는 명상하는 사람이고, 언제 어디서나 아름다운 말을 쓰는 사람이다.

우리는 궁금해서 귀를 쫓긋 세운다.

이 나무의 진짜 꽃은 아주 작아요.

너무 작은 꽃이어서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아요. 향기도 아주 미미하고요. 그러니 먼 데 있는 곤충들이 알 리가 없지요.

개다래나무는 궁리 끝에 제 이파리에 페인트를 칠했어요. 군데군데 이파리마다 희디흰 빛깔이 눈부시지요? 이것이 초록 잎과 어울려 하얀 꽃으로 보이게 된 거예요. 멀리서 이 환한 가짜꽃들을 보자마자 나비나 벌들이 단숨에 달려올 건 뻔한 일이지요?

하지만 속았구나, 느낀 순간,

여기야 여기!

그 소리 나는 쪽을 곤충들이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나뭇가지에 조롱조롱 작은 꽃들이 맺힌 걸 이내 발견하게 되겠지요?

아, 멋진 유혹이군요.

아름다운 유혹이죠.

수정(受精)하는 일이 이렇게 놀랍다니...

식물의 세계가 경이로워요.



숲의 철학자 이형재



개다래나무



관중



말나리



‘의암호’ 그림 이형재

모두 한마디씩 경탄의 소리를 낸다.
 개다래 맛은 어떤가요? 다래처럼 단가요?
 아뇨. 시고 맛없어요. 사람에게겐. 하하...
 이 개다래나무, 짓궂은 장난꾸러기 같지 않나요?
 우린 철없는 아이처럼 웃는다. 우린 숲으로 들어선다.
 이 울창한 나무숲이 우릴 유혹하는 듯싶다. 그래, 하나의
 나비, 하나의 벌이 되어 이 숲의 유혹 속으로 푹 빠져 보자.

숲으로 난 골목길

어제 내린 비로 숲은 젖어있다.
 그동안 가문 날이 오래 지속된 탓에 숲은 잔뜩 묵말라 있
 었다. 그토록 고대하던 단비가 숲으로 왔다. 숲은 갈증을 해
 소하고 생기를 되찾았다. 이파리 이파리마다 뽀얀 비의 기
 운이 숲속 가득히 잠겨 있다.
 고층아파트인 옆갈나무숲을 지나면, 원시시대의 관중관중
 衆이 양쪽으로 도열해 있다. 화살의 과녁 같다 하여 관중이라
 부른다. 이 고사리류는 습지에서 자라는 식물이다. 십 년 전,
 나는 홍천 미약골에서 엄청나게 큰 양치식물을 본 적이 있다.
 일명 호랑고비. 나는 이 원시의 고사리류를 본 뒤, 집에 돌
 아와 이상한 꿈을 꾸었다. 신생대의 매머드가 거대한 관중
 속에 파묻혀 잡아먹히는 꿈을.

조심들 하세요.
 저 호랑고비가 그대들을 잡아먹을지도 모르니까.
 하지만 내 겁박에 일행 중 그 누구도 겁먹지 않는다.
 어디선가 숲에서 후드득 장끼가 날아가는 소리 들린다.
 흡사 ‘거짓말, 거짓말’ 그런 소리를 들려주는 듯이.

모두 우리의 이웃

산딸기가 길옆에 빨갭게 여물어 있다. 산딸기 맛은 새콤
 달콤하다. 이빨 사이로 오도독 깨물리는 그 신신함에 정신
 이 다 쇠락해지고, 산행의 목마름이 말끔히 가신다.
 영롱한 붉은색 산딸기는 산속의 천연음료 역할을 톡톡
 히 해낸다.
 어느 산길엔 보라색 두메꿀풀이 우리를 반갑게 맞이하
 고, 어느 산길엔 둥굴레 가족이 둥글게 모여 오순도순 수
 군거린다.
 설마 우릴 홍보는 건 아니겠지?
 특히 이 숲속 골목길 곳곳엔 생강나무가 큰 마을을 이루
 고 있음을 금세 알게 된다. 그 노랗던 꽃들이 지고, 가을이
 오면 작고 까만 열매를 맺게 되리라.
 알싸한 생강 냄새를 그리워하며 떡갈나무와 상수리나무
 숲길을 오르는 길.

숨이 차다 싶을 때, 이윽고 우린 시야가 탁 트인 정점에 다다른다.

이토록 아름다운 춘천

하얀 비단이 깔린 질푸른 하늘. 반짝이는 봉어섬과 중도. 멀리 화악산 중봉과 매봉이 아득하고, 삿갓봉이 가물거린다. 용화산은 어디메인가. 젊은 날 꿈꾸며 넘었던 청운의 산. 어라! 봉의산도 보이네? 저토록 당당한 오봉산과 사명산이 봉의산을 시위하네?

거울 같은 호수가 하늘 구름을 안고, 초여름 산을 안고, 짙어가는 숲을 안은 채, 유월의 춘천을 속삭인다.

내려가는 길은 겸허하다

어서 와요.

말나리 몇 송이가 산들바람에 흔들린다. 휴대폰 화면에 말나리가 흐리게 인사한다.

꽃은 시들을 아는 철학자. 특히 산속 골목에 핀 꽃은 한 없이 겸허하다.

산은 오름에서 배우지 않는다. 산은 내림에서 배운다. 그것은 느낌을 통해 발견되는 기쁨이다. 그것은 주변에 대한 깊은 사랑이다. 이 발견의 기쁨을 어느 시인은 이렇게 시로 표현했다.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본 그 꽃

나는 말나리의 인사를 가벼이 받는다.

산들바람이 내 이마의 땀을 식혀준다. 이 내림이 끝나면 우린 새로운 마을, 고요한 마을에 당도하게 되리라.

유월의 장미마을, 의암리

신동면 의암리는 드름산 기슭에 자리한다. 옛 경춘로엔 의암댐과 신연교가 있다. 이 의암댐으로 하여 대바지강은 호수가 되었다. 옛날 신연교 철교를 통해 철마鐵馬가 들어왔다. 일제강점기 때는 기차를 철마라고도 불렀다.



아들아나오너라달따러가자



낮선 여행객의 소근거림



인동초 피는 뜻은



접시꽃당신



취동나무길

의암리 마을은 드림산이 품은 비밀의 마을이다. 이 마을은 땀을 낀 길을 휘돌아가야 나타난다.

물론 신설된 의암교 사잇길을 통해 이 의암마을로 진입할 수 있다. 하지만 휘어진 의암교에선 이 마을이 잘 눈에 띄지 않는다.

그런 마을이다. 요양원이 한적하게 자리 잡고 있고, 아침저녁 종이 울리는 교회가 있고, 도랑길을 거슬러 오르다 보면, 드림산의 또 다른 산길이 뻗어있는 동화 같은 마을.

초입새에 붉은 장미가 낮선 방문객을 맞이한다. 그렇다. 담장에도, 개울가에도, 장미는 붉디붉다.

그러나 장미만 우리를 맞이하는 건 아니다.

인동초꽃이 향기를 머금고, 접시꽃이 흰 분첩으로 화장을 엮은 한 뒤 수줍게 우리를 반긴다. 미국에서 온 윤 교수가 접시꽃과 나란히 서서 도종환 시인의 '접시꽃 당신'이 된다. 쥐똥나무 울타리엔 눈꽃 같은 꽃들이 팝콘 터지듯 왁자하다.

점심 때가 되자 인적 없는 골목길에서 어디선가 나타난 마을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 자기 집으로 들어간다. 버섯 하우스나 밭둑에서, 오이·호박 비닐하우스나 마늘밭에서, 사람들은 조용히 돌아와 조용히 쉼 집으로 스며든다.

자두나무 그늘에 앉은 개 한 마리, 킁킁 낮선 객들을 향해 짖는다. 겨울 난로가 길가에 버려진 듯 놓여 있어, 어디론가 열차를 달고 떠날 것만 같다. 칙칙폭폭 두우!

밤이 되고 달빛 마을이 되면,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늘 레일을 타고 매일매일 우주의 먼 별여행을 다녀오는 건 아닐까.

상상은 낮선 객들의 자유이기에 마냥 즐겁다.

그래. 애들아, 나오너라. 달 따라 가자.

골목 골목을 향해 동요 부르듯, 소리치고 싶다.

달 뜨면 어른들도, 아이들이 되고 싶다. *

글 · 사진 최돈선

시인 춘천문화재단 이사장. 춘천의 골목엔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 그것이 궁금한 시인은 골목순례를 걸심했다. 골목은 춘천시민의 가장 깊은 내면이며 참모습이기 때문이다.



‘노벨평화’에서 ‘생명평화’로



<거위의 산보> 종이 위에 색연필, 정상명

얼마 전, 춘천에 사는 한 편집자와 통화를 할 일이 있었다.
“선생님, 칼에 여기저기 찢린 고양이가 나와요. …무서워요!”

통화 도중에 텔레비전에서 그런 끔찍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 모양이었다.

“아이고, 저런. 산 고양이를 왜? …사이코들!”

“그러게 말이에요. 제정신 가진 사람이라면 어떻게 죄 없는 고양이를 저렇게 칼로 찢어놓을 수 있을까요.”

마음속에 ‘양심’이라는 이름의 경찰관이 없고, ‘연민’이라는 이름의 화로火爐가 없는 사람들, 그렇게 잔인한 사람들은 인간 무리들 속에서는 대개 가장 악한 사람들이기 일쑤다.

통화를 마치고 생각해보니, 동물학대는 꼭 사이코패스들만의 일일까, 싶은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우리 모두, 동물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문득 그런 질문이 고개를 쳐

들었다. 간디가 한 말 중에 동물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명언이 하나 있는데, 그것만으로도 간디가 ‘마하트마(위대한 영혼)’라고 불릴 만하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 곧 “한 나라의 수준은 그들이 동물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달려 있다”는 명언이 그것이다.

인간의 동물학대는 그 끝이 어디까지일까

전후에 태어난 나는 어려서부터 어른들이 복날이면 개를 몽둥이로 때려잡는 것을 보고 자랐다. 어른들의 표정은 상기되어 있었다. 잡은 개를 개울가 풀밭 말뚝에 꿰뚫거나 매달아서 불로 그슬리던 광경도 떠오른다. 하늘로 흩어지는 검은 구름이 개의 영혼 같았다. 마을에 길흥사가 생기면 어른들이 중돼지 정도의 돼지 목에 식칼을 깊이 찢러넣어 바깥에 피를 뽑아내고, 큰 솥에 통째로 삶은 뒤 털을 뽑는 모습을 본 기억도 새삼스레 난다. 얼음이 언 개울에서

소의 정수리를 쇠망치로 쳐서 쓰러뜨리는 모습도 본 적 있다. 어려서 본 동물 살해 장면들은 평생 잊혀지지 않는다.

전 세계적으로 인간이 자행하는 동물학대의 양태들은 차고 넘친다. 수천 년 동안 지속되어 온 그 흑역사는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정색하고 묻게 한다. 산 동물을 차에 끌고 달려서 죽이거나, 강아지를 땅바닥에 패대기를 치는 동물학대 뉴스도 잦다. 횃집에서는 살점이 발라졌지만 여전히 생선의 눈이 껌백이면 신선하다고 환호한다. 산 것들을 가둬놓은 뒤 환호작약하면서 잡는 일이 축제로 둔갑한 이 나라 여러 산촌의 겨울축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다. 황소의 성을 돋워 끝내는 창으로 찔러 죽이는 스페인의 투우나 돌고래를 만(灣)에 몰아넣은 뒤 작살로 찔러 죽여 피바다로 만드는 일본의 어부들, 덴마크의 고래 죽이기 축제, 소싸움, 닭싸움, 중국의 기이한 식문화 등등 인간이 동물을 대하는 방식은 잔혹함의 극치다. 동물의 눈으로 보면 인간종은 모두 사이코패스라고 간주할 것이다.

물론 동물학대를 억제하려는 법률적 장치가 치밀해지고 강력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이 세상에 다녀가신 성인들이나 현자들은 “다른 생명을 그렇게 대하지 말라”는 충고를 빠뜨린 적이 없었다. 그러나 그런 법 적용이나 성현들의 말씀으로 인간의 폭력성이 줄어드는 것 같지는 않다.

이제는 ‘노벨평화’가 아니라 ‘생명들의 평화’다

2000년대 초반 새만금 갯벌을 살리려는 노력을 할 때, 나는 어떤 공동 기자회견장에서 ‘생명평화’라는 말을 사용한 적이 있었다. 조계사 뜰이었는데, 환경단체 명망가들과 훗날 삼보일배를 감행한 실상사 스님들, 그리고 특이하게도 지금은 개발론자가 되었지만 당시 환경파수꾼으로 막 뜨기 시작한 오세훈 변호사도 옆에 앉아 있었다. ‘생명평화’라는 말을 발화하자 주변 사람들이 모두 일제히 내게 시선을 던졌다. 무슨 뜻의 말인가, 하는 얼굴들이었다.

“20세기는 서로 죽이는 학살과 참화에 대응했던 ‘노벨평화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생명들의 평화’가 보장되는 공

생의 시대를 만들어가자, 그런 뜻입니다.”

그러자 그중 문해력이 빠른 누군가가 “생명과 평화가 아니라, ‘생명들의 평화’라는 뜻이군요?”라고 확인했고, 나는 그의 빠른 이해에 탄복했다. 지금은 그 말을 여러 사람이 여러 곳에서 다양하게 널리 사용하고 있지만, 내가 20여년 전, 임의로 사용했던 그 말의 첫 조합은 그런 의도였었다.

네가 있기 때문에 나도 있다

이 행성이 사람이 살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된 까닭은 그 안에 하늘, 땅, 물, 공기, 같이 살고 있는 동식물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명백한 사실이고, 진리다. 달리 말하면, ‘지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다’. 동학의 최시형은 이를 경물(敬物)과 양천(養天)이라고 했다. 경물이란 만물에 대한 외경이란 뜻이고, 양천은 그 외경의 마음을 하늘의 관념으로 표현한 것이다. 만물이 인간의 조건인 이상, 만물을 하늘처럼 섬기고 길러야 한다는 ‘만물돌봄’의 철학이다.

이런 이야기는 고리타분하게 들리기 쉽고 묵살당하기 쉽다. “너도 고기를 먹지 않느냐?”라는 질문 때문이다. 그렇지만 채식주의자들이 취하는 식물도 의식이 있는 존재라고 하지 않는가. 육식문화는 문제가 많고 반드시 약화되어야 할 일이지만, 동물을 생명체로서 정중하게 대하자는 생각이 꼭 채식주의자들만의 주장이어야 할 일은 아닐 것이다.

모든 살아 있는 것은 존중받아야 할 것이다. 그들과 우리는 진화적으로 한 조상에서 갈라졌고, 언제나 우리와 같이 살고 있기 때문이다.

글 최성각

새나 돌멩이 등 비인간에게 참회를 표하는 방식으로 환경운동을 한 생태주의 작가. ‘삼보일배’나 ‘생명평화’ 같은 개념을 창출했다. 요산문학상, 교보환경문화상을 받았다. 최근에 『산들바람 산들 분다』, 『나무가 있던 하늘을 퍼냈다』



초승달도 은하수도 다 가진 사람



시인이자 문화기획자인 김보람 씨

책으로 맺은 인연

앤드루 포터라는 미국의 작가가 있다. 그가 첫 소설집 『The Theory of Light & Matter』로 ‘플래너리 오코너 문학상’을 수상한 건 2008년. 그로테스크한 작품으로 자신만의 영역을 확고히 가졌던 오코너는 내가 무척 좋아하는 작가였는데, 그래서인지 그의 이름을 딴 문학상을 받은 소설들은 출간이 될 때마다 구입해 읽었다. 앤드루 포터의 첫 책이 『빛과 물질의 이론』이란 제목으로 국내에 번역 출간된 건 그로부터 3년 뒤, 아쉽게도 독자들의 반응을 크게 얻지 못해 곧 묻혀버렸다. 상황이 이러니 이 책을 아는 사람을, 그것도 세월이 10년쯤 흐른 뒤에 만나게 된다면 얼마나 반가운 일이겠는가. 문화기획자라는 독특한 직업을 가진 김보람(38) 씨가 바로 그 사람이다.

그와 처음 인연이 닿은 건 화가의 그림을 ‘읽고’ 소설가의 글을 ‘그린’ 아이들의 작품집 『김유정 그리는 아이들, 박

수근 쓰는 아이들』이었다. 300쪽이 넘는 두툼한 분량도 듣직했지만 아이들의 글과 그림에 담긴 기발한 표현과 상상력에 먼저 감탄이 절로 일어나는 책이었다. 글을 그리고 그림을 쓴다는 건 그 자체로 신선하고 즐거운 발상의 전환인데, 화가 이수현 씨와 함께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1년여 아이들과 작업해 이루어낸 성과가 놀라웠다. 이런 성과를 김보람 씨는 “편견도 없고, 실수에 대한 두려움도 없는” 아이들의 특성이 만들어낸 것으로 보았다.

어린이의 감성으로 쓴 시

아이들의 서툰 문장들 속에서 빛나는 표현을 발견할 때 “심장이 두근거린다”는 그는 일곱 살과 열 살 두 아이의 엄마다. 그런 엄마의 눈으로 쓴 세 편의 동시로 아동문예지 『동화향기 동시향기』의 신인상을 받으며 등단한 게 작년 봄. “새근새근 잠을 자는 / 아기의 황금 엉덩이가 / 까만 이불 사이

로 살짝 보인다”는 시는 제목이 ‘초승달’이다. “말썽꾸러기 동생이 / 누나 별 목걸이 휘두르며 놀다가 / 그만 줄이 툭 터지고 / 별 구슬들이 순식간에 흩어져 버렸다”는 시 ‘은하수’에는 그의 두 아이가 보인다.

대학에서 중국학을 공부했으나 지방대의 설움을 톡톡히 맛본 그는 1년여 공시생으로 살던 중 학창시절에 빠졌던 문학에서 새로운 길을 찾았다. 이후 독서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대학원에 입학해 교육심리를 공부하고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습 상담을 하고 인문학 강의로 하며 바쁘게 살았다. 학생에서 성인까지 독서를 통해 인간관계의 폭을 넓히고 다양한 삶을 함께 배워 가는 독서클럽은 그에게는 생활의 기반이기도 하다. 기계적인 논술을 지양하고 정형화된 도서목록 대신 늘 새로운 책들로 대화하고 토론하는 방식은 그가 책임기 지도를 할 때 주안으로 삼는 모토 ‘가장 보편적인 문학, 당신에게 의미 있는 이야기를 꺼내어 주세요’에 잘 담겨 있다. 그 바탕에는 ‘인생의 어려운 시기를 맞닥뜨렸을 때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책’이라는 신념이 깔려 있다.

춘천, 문화를 가르치고 배우는 터전

세 살 무렵에 서울에서 이사를 와 초등학교에서 대학까지 다닌 춘천은 그에게 고향에 다름없다. 시립도서관에서 동시를 배워 등단하고, 김유정문학촌에서 소설수업을 들어 신춘문예에도 도전했다는 그는 ‘문화도시 춘천의 수혜자’를 자처한다. 알랭도 보통의 『불안』으로 청년기의 불안을 달래며 문학의 가치를 믿게 되었고, 트리나 폴러스의 그림책 『꽃들에게 희망을』은 자신다운 삶을 사는 조용한 혁명을 춘천에서 일으켜야지 생각하게 만든 책이다. 그리고 혼자만의 삶을 살려 했던 그에게 ‘나’를 위한 미래를 ‘우리’를 위한 미래로 확장시켜 결혼에 이르게까지 한 책은 안도현의 『연어』였다. 앤드루 포터의 소설집과 함께 지금의 그에게 글을 쓰는 지표가 되어준 것은 영국의 작가 줍파 라히리의 『축복받은 집』. 그에게 작가가 소중히 하는 ‘상처를 주지 않는 삶, 배려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 사람들’이기 때문



이다. ‘세상의 곳곳에 닿는 작가의 시선이 왜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준’ 작가들의 영향으로 시를 쓰고, 작가의 꿈도 아무 지게 다지는 중이다.

가족과 함께, 가족 너머 꾸는 꿈

‘과도하게 외향적인 데다 남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욕구가 강한’ 그에게 안정감을 찾아주는 고마운 존재, 서너 종의 책을 한꺼번에 읽고 일도 두세 가지를 동시에 처리하느라 스트레스를 자초하고 일의 능률도 떨어뜨리는 ‘못 말리는 멀티태스킹’인 그를 늘 무한 지지해주는 것은 다정한 남편이다. 두 아이와 함께 그의 ‘보물1호’인 남편은 이상과 현실이 충돌할 때 대화를 통해 답을 찾게 해주는 고마운 사람이다. ‘평화롭고 정의로운 교실’을 만들고 싶다며 반장 선거에 나간 큰아이와 한번 꽃히면 밤낮없이 빠져드는 탐구심 강한 둘째 아이가 저마다의 꿈을 맘껏 펼치며 살아가기를 바라는 엄마 김보람 씨. 그가 쓰는 동시들이 두 아이를 넘어 모든 아이들의 꿈과 동행하기를 빈다.

글 하창수

소설가이며 번역가. 춘천으로 이사 온 지 30년, ‘경상도 사람’이라는 얘기를 들을 때면 괜히 섭섭해지는 춘천 사람이다. ‘사람 이야기’는 춘천에 살면서 그가 알게 된 사람, 그 누군가의 이야기다.



고개에서 춘천의 어제를 만나다

국토의 70% 이상이 산지인 우리나라는 고개가 많을 수 밖에 없다. 지금이야 터널이 뚫리고 편해진 세상이지만 고향이 지척인데도 만 리처럼 느껴져 넘지 못하는 머느리 고개였고 사랑하는 임을 떠나보내는 이별 고개였다. 민족 수난 시대 애환을 지닌 아리랑 고개까지 고개는 우리에게서 떼어낼 수 없는 민족혼과 정서의 한 부분이었다.

인생의 오르막에 숨이 깔딱 찰 정도에 오르고서야 내리막길을 보며 숨을 돌릴 수 있었다. 그 넘어섬은 우리네 인생의 질곡을 뒤로하고서 언덕 너머에 있을 희망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한자로 만나는 고개의 의미

고개를 나타내는 한자로는 령嶺 현峴 치峙 재岾가 있다. 네 한자에는 모두 산山 자가 들어가 있으며 고개의 규모와 역할에 따라 조금씩 달리 사용했다. 령嶺은 가장 규모가 큰 고개로 도道나 시군市郡의 경계 또는 규모가 큰 고개에 붙여 사용하였다. 재岾는 마을 어귀에 성황이나 솟대 또는 장승이 세워져 있는 고개에 붙여 사용하였다. 현峴과 치峙의 구

분은 뚜렷하지 않으나 면面 단위 정도의 경계를 이루는 고개에 붙여 사용하였으며, 현峴이 령嶺보다 규모가 작지만 치峙보다 규모가 크며, 치峙보다 경사도가 완만하며 비교적 덜 가파른 형태를 띤다.

사통팔달 춘천의 고개

춘천 또한 높다란 산으로 둘러싸인 전형적 분지다. 이러한 까닭에 춘천에서 다른 곳으로 나가거나 들어오려면 고개를 넘어야 했다. 터널이 뚫리고 신작로가 들어서기 전 서울로 가려면 서면 삼악산 뒤편 덕두원에서 안보리로 이어지는 석파령石破嶺을 넘어야 했고, 홍천으로 가려면 동내면 대룡산과 금병산 사이 원창고개原昌峴를 넘어가거나 동내면 고은리에서 대룡산을 넘어 홍천 북방으로 이어지는 길을 택해야 했다. 양구로 가는 길은 소양강 줄기를 따라가면 되었기에 비교적 수월했다. 화천으로 가는 방법은 여러 경로가 있으니, 신북읍 발산리에서 양통령兩通嶺을 넘어 양통으로 들어가 부다리고개를 넘어가거나, 지내리에서 새밀고개를 넘어 고성리로 들어가 부다리고개富橋峴를 넘어가야 했다.



더위를 피해 구봉산을 찾은 시민들(1996.6)



카페와 맛집이 들어선 구봉산(2022.6)

잊히는 갑둔이고개와 떠오르는 구봉산

1991년 8월 강원도 고성에서 세계 잼버리대회가 열리면서 춘천 외곽도로에 적잖은 변화를 가져왔다. 일명 ‘잼버리 도로’로 불리는 도로가 신동면과 동내면, 동면 외곽으로 뚫리면서 특히 동면 구봉산에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이 도로는 신동면 팔미교차로-정족리·학곡사거리·거두리-만천사거리-구봉산-감정삼거리·느랏재·평촌리·상걸리-홍천 풍천리-가락재-구성포로 이어진다.

‘잼버리 도로’ 개설 전에는 춘천 동내면에서 홍천 구성포로 가려면 갑둔이고개(갑둔치甲屯峙, 516m)를 넘어야 했다. 갑둔이고개는 대룡산(大龍山, 899m)과 구봉산 가운데 최고봉인 명봉(明峰, 643m) 사이에 있으며 동내면 거두리와 동면 상걸리를 연결한다.

이에 반해 구봉산 후면에 있는 동면 감정리에서 상걸리로 가려면 느랏재를 넘어 물푸레마을(평촌리)을 지나야 했기에, 상대적으로 훨씬 먼 길을 돌아가야 했다. 마치 갑둔이와 갑순이가 살았을 것 같은 갑둔이고개는 춘천에서 홍천

구성포로 나가는 관문인 셈이며 금강산으로 향하는 출발점이다. 이러한 까닭에 춘천 선비는 갑둔이고개를 넘어 홍천의 외삼포·서석·행치령·양양·고성·간성·금강산으로 유람을 떠나기도 했다.

잼버리도로 개설로 동해로 나가는 출발점이었던 갑둔이고개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가물가물 사라져 갔고, 구봉산 중턱을 지나는 도로변에는 춘천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카페와 음식점이 들어섰고 지금도 진행형이다.

구봉산 근처에는 춘천 박씨 시조 박향을 배향하는 구봉서원이 있었다. 춘천 박씨는 춘천을 관향으로 사용하는 유일한 성씨로 조선 말기 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으로 문암서원, 도포서원과 함께 문을 닫았지만, 현재 재실齋室이 구봉산 자락에 자리하여 구봉서원의 창건 정신을 이어가고 있다.

춘천에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고개가 많다. 마을과 마을을 연계해준던 고개에는 제각각의 사연을 담고 있다. 갑둔이고개는 상걸리에서 맞은편 거두리로 시집온 아낙이 넘었을 테고 춘천에서 동해로 떠난 선비도 넘었을 것이며 붓집진 박물 장수도 오가며 넘던 우리네 삶의 애환과 추억이 녹아 있는 곳이다.

갑둔이고개는 구봉산과 대룡산으로 오를 수 있는 갈림길이기도 하다. 갑둔이를 사이에 두고 대룡산은 춘천을 감싸주는 어머니 같고 구봉산은 춘천의 아름다움을 밤낮으로 함께하는 친구 같아서 이곳을 지날 때마다 즐거운 상상으로 늘 행복하다. 오늘도 일상의 고됨을 감싸 안고 인생의 고개를 희망으로 넘어서자.



동내면 거두리와 동면 상걸리를 연결하는 갑둔이고개

글 허준구

문학박사. 춘천학연구소 소장. 일찍이 춘천학에 관심을 갖고 춘천의 역사와 문화에 집중해 왔다. 특히 천혜의 춘천 자연환경에 문화와 역사의 색을 입히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심리툰과 함께 내 마음 바라보기 봄 마음 내 마음



팔호광장 @palhosquare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심리툰 작가

제7화 가면과 그림자

우리는 모두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직장에서, 집에서, 학교에서,
모두 다른 모습의 가면.



어떤 사람은 필요 이상으로 솔직하게
굳이 그럴 필요 없는 상황에서까지
있는 그대로 자신을 드러내기도 하고,

난 사실
예전에
이런이런 일이...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올바른 가치를 주장하며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욕망까지 부정하며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만을 보이려 애씁니다.



하지만 나에게 좋은 면만 있다고 생각하면,
어두운 것들은 더 짙은 그림자가 되어 숨어버리고
들키지 않는 음습한 방식으로 새어나가게 됩니다.
유명인들의 비리, 범죄가 들끓나면
그래서 더 망신스럽지요.

왕성 / 수근
와, 두통수
두얼굴이었네.
정말 믿을 사람 없다.
왕성 / 수근



성숙은 나의 부족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숨기고
가면을 크고 멋지게 꾸며내는 일이 아닙니다.



남들과 다름없는 나의 욕망과 그림자를
직시하고 건강하게 드러내려는 노력,
그것이 진정한 성숙의 시작이 아닐까요?



@palhosquare

“사고로 모든 것을 잃은 이철우 님에게 힘이 되어주세요”

이철우(가명 · 만 64세) 님은 아파트 공사현장 추락사고로 허반신이 마비되어 하루빨리 병원에 입원하여 욕창과 재활치료를 시작해야 하지만 하루에 10만원이나 되는 간병비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아버지는 치매가 있어 여든이 넘은 어머니가 홀로 아들을 간병하고 있지만 24시간 돌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던 중 어머니가 쓰러져 입원하기도 했습니다.

주변의 도움 없이는 혼자 밥을 먹지도, 물을 마실 수도 없는 이철우 님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주세요.

대 상 자	이철우(가명 · 만 64세)
모금기간	2022. 7. 1. ~ 7. 31.(1개월)
목표금액	500만원(간병비)
모금계좌	농협 203-01-548843 신한 100-035-191184
예금주명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강원도지회
입금방법	후원○○○(후원자 성명)
후원문의	시 복지정책과 ☎250-4015

행복나눔 후원 릴레이 68호 모금 결과

시민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모아 68번째 대상자 박영지(가명·만 5세) 군에게 생계비 300만원을 전달하였습니다. 모금에 동참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춘1000인 천원나눔 범시민 운동 참여 안내

■ 「춘1000인 천원나눔」 범시민 운동이란?

매월 천원의 작은 금액을 기부하여
어려운 이웃을 돕는 범시민 운동입니다.



■ 후원금액은? 1인 매월 1,000원부터

■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춘천인천원 나눔_춘천시”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선한 이웃이 되어주세요



매일 식사는 잘하는지 아픈 곳은 없는지 집안에 문제는 없는지...
이웃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춘천시정부는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선한 이웃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이웃이 있다면 지금 바로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 복지정책과로 알려주세요.

시 복지정책과 ☎250-4180

※ 세제혜택을 위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은 강원사회복지공동모금회(☎244-1662)로 필히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소식

■ 제317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의안목록 2022. 6. 20. ~ 6. 23.

- 춘천사회혁신파크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춘천인형극장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
-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
- 춘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 춘천북부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

■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2022. 6. 6.



춘천시의회(의장 황환주)는 제67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해 순국선열의 넋을 기렸다.

2022. 6. 14.



제226차 강원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월례회가 토이로봇관(춘천시 서면)에서 개최됐다.



시민이 뽑은 제11대 춘천시의회 의원

임기 2022. 7. 1. ~ 2026. 6. 30.



김진호



박남수



이희자



정경옥

가 선거구

동산면 / 신동면 / 동내면 / 남면 / 남산면 / 강남동



김영배



유홍규



이선영



김보건



김지숙



유환규

나 선거구

소양동/교동/조운동/약사명동/근화동/효자1동/효자3동

다 선거구

후평1동/후평2동/후평3동



김운기



신성열



윤민섭



박노일



배숙경



정재예

라 선거구

효자2동/석사동

마 선거구

퇴계동



권주상



박제철



권희영



김용갑



나유경



남숙희



지승민

바 선거구

신북읍/동면/북산면

사 선거구

서면/사북면/신사우동

비례대표

봄내골 소식

함께해서 행복한 봄내골 소식을 전합니다.

지면 사정상 들어가지 못한 봄내골 소식 사진은

봄내 홈페이지(bomnae.chuncheon.g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성 금

• **(재)하늘우물 장학회(이사장 강수애)**는 5월 25일 관내 저소득 가구를 위한 후원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 **춘천도시공사(사장 조완형)** 직원 일동은 5월 27일 관내 저소득 가구를 위한 후원금 149만원을 전달했다.

물 품

• **후평3동 주민 이상국 씨**가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아 관내 취약 어르신들에게 전달할 쌀 10kg 5포(30만원 상당)를 후평3동 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다.

• **후평3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연제철)**는 5월 10일 **희락(대표 이순녀)**이 기탁한 도시락을 청장년 장애 3가구에 전달했고, 5월 17일에는 김치를 직접 담가 취약가구(100가구)에 전달했다.

• **신북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김신림)**는 5월 11일과 25일 6월 8일에 저소득 독거노인 40가구에 전달할 반찬 조리 및 전달봉사와 푸드뱅크 식품전달 봉사를 했다.



• **스마일명품참쌀파배기 우두점(대표 강미자)**은 5월 11일 관내 독거노인 및 저소득 20가구에 파배기를 전달했다.



• **강남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이옥희)**는 5월 12일과 27일에 어려운 이웃 31가구에 반찬을 전달했다. 특히 5월 12일에는 **남춘천여중 1학년 2반(담임 이유미)** 학생들이 만든 카네이션 25송이를 함께 전달했다.



• **후평2동 통장협의회(회장 박재영)**는 5월 12일 후평2동 소재 경로당 8곳에 라면 총 40박스(100만원 상당)를 기부했다.

• **후평2동 바르게살기위원회(위원장 최경숙)**는 5월 13일 후평주공7단지 아파트 경로당에서 어르신들과 함께 만든 형값인형 약 50개를 춘천여성협동조합 마더센터에 전달했다.

• **동내면 새마을부녀회(회장 문교순)**는 5월 13일 **한국수자원공사 소양강댐관리단** 후원(200만원)으로 만든 반찬을 댐주변지역 독거노인 70여 명에게 전달했다.



• **남산면 경강막국수(대표 신창화)**에서는 5월 17일 서천1리 어르신 30여분께 식사를 대접했다.



• **신동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신경순)**에서는 5월 17일 독거노인과 취약계층 22가구에 반찬을 전달했다.

• **새마을금고(6개 본점)는 춘천시, 노인복지관(4개소)**과 5월 17일 민·관 협력 지역상생사업 협약을 맺고 실버카 117대(1,400만원 상당)를 보행이 불편한 노인 취약계층에 전달했다.



• **근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박근홍)**에서 5월 18일 **해신탕능이마을(대표 이춘자)**의 후원 식품(30그릇)을 저소득 노인가구에 전달했다.



• **후평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박정임)**는 5월 18일 취약계층 15가구에 반찬을 전달했고, 5월 19일에는 독거어르신 2가구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설치했다.

• **효자3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강금옥)**는 5월 19일 가정의 달을 맞아 관내 취약계층 30가구를 위한 도시락 배달 봉사를 진행했다.

• **교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박남숙)**는 5월 24일과 6월 7일 어려운 이웃을 위해 반찬을 만드는 봉사를 했다.

• **신사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이승규)**는 5월 25일과 6월 8일 취약계층 21가구에 밀반찬과 과일을 전달하며 안부를 확인했다.

• **후평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최종철)**는 5월 25일 독거노인 등 저소득층 85가구에 밀반찬을 전달했다.



• **(주)에프앤디넷(대표 윤재웅)**은 5월 25일 취약계층을 위해 1억6,000만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 3,030상자를 전달했다.

• **보타사 관음손 봉사단(단장 양영석, 주지 진철스님, 부단장 이옥희)**는 5월 26일 어려운 이웃 35가구에 직접 만든 밀반찬과 가족봉사단이 직접 기른 상추를 전달했다.

• **소양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이선희)**는 5월 30일 위기장년 5가구에 식료품 꾸러미를 전달했다.



• **소양동 자원봉사단(단장 이관선)**은 5월 31일 관내 경로당 및 장년 1인 가구에 김치를 전달했다.

• **(주)파우(대표 최미화)**는 6월 3일 화장품 290세트(2,842만원 상당)를 저소득 가정 290가구에 후원했다.

• **춘천남부노인복지관(관장 김소영)**에서 6월 7일 신동면 내 경로당 어르신들을 위해 껍티슈 600개를 전달했다.

• **굽네치킨 동광오거리점(대표 김효진)**은 6월 9일 복지사각지대 후원을 위한 통닭 5마리를 기탁했다.

봉 사

• **춘천시자원봉사센터(소장 김원봉)**는 강원대학교 학생 12명이 참여하여 5월 21일 신사우동 홀몸 노인가구에 도배·장판 및 외부 수도 설비를 교체 봉사를 했다.



• **조운동 주민자치회(회장 김명규)**는 5월 12일 조운동행정복지센터에서 바우공원 골목안길까지 국토대청소를 실시하였다.

• **신북읍 농가주부모임회(회장 유명연)**는 5월 24일 신북읍 유포리 1114일원 1,900평 논에서 사랑의 모내기 행사를 개최했고 수익금은 지역 소외계층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 **새마을문고중앙회 춘천시지부(회장 이희순)**의 새마을작은도서관봉사단은 5월 26일에 신사우동, 6월 9일에 퇴계동의 독거노인 어르신 댁을 찾아 정리수납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봉사를 했다.



• **퇴계동 퇴계천살리기 시민실천단(단장 용현중)**은 5월 27일 퇴계천 117-1일원 한경정화 봉사를 했다.



• **강남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이옥희)**는 6월 2일 삼천동 경로당 근처에서 자연정화 봉사를 했다.

• **동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박근순)**는 6월 2일 쓰레기 더미로 엉망이 된 위기가구 집청소 봉사를 했다.



행 사

• **선행이웃 마을돌봄 프로젝트인 동산면 마을복지계획단**은 5월 12일 월드비전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 전인고등학교에서 발대식을 했다.



• **동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임춘욱)**는 5월 26일 매월 고평 10인분을 정기 후원하는 전주장작불공탕(대표 이창훈)에 나눔가게 현판을 전달했다.

• **효자노인자원봉사단(단장 허만숙)** 20명은 5월 27일 효자2동~중앙로 거리에서 안전운전 50/30 캠페인을 했다.



• **신사우동 마을복지계획단**은 6월 9일 춘천북부노인복지관에서 2022년 신사우동 마을복지계획단 위촉식 및 발대식을 가졌다.

시정 정보

■ 2022 반려가족과 함께하는 산책프로그램 <마실중Dog> 참가자 모집(3차)

일시장소 7.16.(토), 19:00~21:00 / 공지천 분수대
대상 반려가족 50팀 (최대 200명)
프로그램 산책, 스탬프투어, 버스킹, 반려견올림픽, 체험프로그램 등
신청기간 7. 4.(월) ~ 7. 15.(금) 2주간
신청방법 시 홈페이지 시정소식 게시판 신청링크 (참가비 1만원)
문의 (주)강원일보 ☎ 255-0920
 춘천시 반려동물산업과 ☎ 245-5978

■ 2022년 자산형성지원사업 모집 안내

문의 복지지원과 ☎ 250-3379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1. 희망저축계좌 안내 I

신청기간 7. 1. ~ 7. 12.
지원내용 매월 10만원 저축 시 근로장려금 30만원 지원
모집대상 생계·의료급여 가구 중 근로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2. 희망저축계좌II

신청기간 7. 1. ~ 7. 13.(10만원 저축 시 10만원 지원)
지원내용 매월 10만원 저축 시 근로장려금 10만원 지원
모집대상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

3. 청년내일저축계좌(근로장려금 지원)

신청기간 7. 1. ~ 7. 13.
지원내용 매월 10만원 저축 시 근로장려금 30만원 지원
모집대상

가입연령	만 15세~만39세 이하 (*차상위 초과: 만19세 이하~만 34세 이하)
소득기준	월소득 50만원 초과 ~ 200만원 이하
가구소득·재산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재산 2억원 이하

■ 시민생활문화전시관 생활수집품 전시희망자 모집

전시장소 시민생활문화전시관(서부대성로44번길2, 1층)
전시기간 8월 이후(전시 일정은 조율하여 진행, 품목당 3개월 진행)
전시내용 지역 근·현대 생활상을 볼 수 있는 생활 물품
 ※ 최소 100점 이상 소장하고 있어야 전시 가능
문의 ☎ 250-3485

■ 춘천시청 제로웨이스트 팝업스토어 운영 알림 <아름다운가게 지구살림 팝업스토어>

기간장소 6. 28. ~ 7. 27. / 춘천시청 1층 로비
운영시간 월~금 / 11:00~17:00
주요내용 제품 판매, 기증스테이션 운영, 포토존 이벤트 등
문의 (재)아름다운가게 ☎ 253-0050
 자원순환과 ☎ 250-3359

■ 2022년도 재산세(주택, 건축물) 납부 안내

납세의무자 6. 1. 현재 주택, 건축물의 사실상 소유자
납부기간 7. 16. ~ 8. 1.
납부방법 금융기관 방문, 인터넷(www.wetax.go.kr), 인터넷지로 (www.giro.or.kr), ARS(☎033-250-4114) 등
문의 세정과 ☎250-3283, 4038, 3876

■ 2022년 춘천시민 녹색장터 개최 (춘천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

주최	춘천시 자원순환과	
주관	스무숲도서관 (☎070-7773-4863)	춘천사랑시민협의회 (☎250-3131)
일시	7월 9일 13시~17시	7월23일 10시~4시
장소	퇴계동 현진에버빌1차 아파트 놀이터 및 분수대	퇴계동 주공5단지 내 인라인스케이트장 일원
행사내용	- 나눔장터 - 모아가게&담아가게 (뚜껑·빨대(20), 폐건전지(5), 우유팩 500ml/10)a 모아오기) - 리크레용만들기 & 키보드 수리 - 자원순환 체험 공예 등	- 나눔장터 - 자원순환가게 (아이스팩, 폐건전지, 안쓰는 장바구니, 화분 가져오시면 친환경제품과 교환) - 자원순환 체험 공예 등

※ 춘천시민 녹색장터는 1회용품 사용하지 않습니다.(장바구니 지참)

도서관

■ 춘천시립도서관

접수 도서관 홈페이지 → 문화마당 → 문화행사 신청

문의 ☎245-5109, 5110, 5069

프로그램	일시	대상
장난감으로 배우는 영어	7.9./7.23.(토) 14:00~15:00	유아
그림책 굿즈 만들기	7.9.(토) 14:00~16:00	초등
그림책 놀이터	7.23.(토) 11:00~12:00	유아
모두의 레고, 레초고!	7.9./7.16.(토) 11:00~12:00	초등
도전! 세계 문화 탐험대	7.16.(토) 14:00~16:00	초등
가족과 함께하는 만들기Day	7.23.(토) 13:30~17:00	가족
인문학 강좌	7.7. / 7.14. / 7.21. / 7.28.(목) 19:00~21:00	성인
춘천시민필하모닉 오케스트라 공연	7.9.(토) 14:00	가족
홈 파밍 (셰프와 함께 쿠킹 클래스)	7.10. / 7.17. / 7.24.(일) 14:00~16:00	성인
그림책과 함께 안심먹거리체험	8.6.(토) 14:00~16:00	유아
부모-아로마오일 만들기	8.6.(토) 11:00~12:00	성인

■ 시립청소년도서관

1. 미디어창작실 대관 안내

신청기간 매월 넷째 주 화요일 10:00 ~

신청방법 도서관 홈페이지 → 이용자마당 → 미디어창작실

대상 춘천시립공공도서관 14세 이상 정회원

내용 영상, 음향, 이미지 제작 / 편집 / 체험 가능

문의 ☎245-5793

2. 그림책 놀이 모집

일시 매주 수, 목, 금요일 10:30~11:30

대상 어린이집 및 유치원(유아 단체)

내용 교구를 활용한 동화구연, 그림책 읽기,
손유희 등 다양한 책놀이 진행

신청기간 6.21.(화) 10:00 ~

신청방법 도서관 홈페이지 → 문화마당 → 문화행사 신청

강의방법 대면 강좌(시립청소년도서관 나르샤실)

문의 ☎245-5095

주민자치센터

강의 신청 등 자치센터 사정에 따라 교육일정 등 조정 및 폐강 등 가능

■ 신사우동

신청기간 관내 7. 4.(월) ~ 6.(수) / 관외 7. 7.(목) ~ 8.(금)

모집방법 신사우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선착순, 신분증지참, 대리접수불가)

운영기간 8 ~ 12월(5개월)

운영장소 우두농악보존회 2층(영서로2802)

문의 ☎ 245-5859, 252-7736

프로그램	정원	운영일정	수강료
설장구	15	월 14:00~16:00	5만원

※ 신사우동 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 공사로 인하여
하반기 프로그램은 운영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동면

신청기간 관내 7. 4.(월) ~ 5.(화) / 관외 7. 6.(수) ~ 7.(목)

운영기간 7 ~ 9월 (3개월)

모집방법 동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선착순, 신분증 지참, 대리접수 불가)

문의 ☎245-5329

프로그램	정원	운영일정	수강료
다이어트댄스	20	화, 목 10:00~11:00	무 료
라인댄스	20	화, 목 14:00~15:00	무 료

모 집

■ 춘천시자원봉사센터 성인자원봉사 기초교육(zoom)

일시장소 7. 16.(토) 10:00~12:00, 춘천시자원봉사센터 1층

인원 선착순 30명

자격조건 1365자원봉사포털 신규 등록자, 기초교육 미이수자

주요내용 자원봉사의 이해, 1365체계, 마일리지제 등

신청 전화 또는 1365포털(www.1365.go.kr) 접수

문의 ☎257-0202, 070-4223-8759

■ 춘천문화재단

1. 2022 기술 입은 문화예술교육(#무대는 살아있다 Ⅲ)

교육일시 7. 23. ~ 8. 13.
쇼케이스 8. 14(시간미정 추후 공지) 전석 무료
장소 춘천문화예술회관 공연장
문의 ☎259-5844, 5849

2. 문화예술교육 체험(두더지야 놀장場)

기간 7.25.(월)~7.30.(토)
프로그램 초등학교 대상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및 체험 활동 부스 운영, 청소년 토크콘서트,
 성인 대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장소 춘천 예술촌, 아르쥔 생활문화센터 일대
참가비 무료
문의 ☎259-5432

3. 춘천시립예술단 유료정기회원 연중 모집

대상 춘천시민 포함 누구나
가입비 일반인 7만원, 학생 3만 5,000원
문의 ☎259-5869, 5874



■ 춘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질환의 이해 시민 교육

대상 정신질환에 관심이 있는 시민 누구나
일시 1차: 7. 13.(수) 13:30~15:00
 2차: 8. 24.(수) 13:30~15:00
장소 춘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
내용 정신질환의 이해, 정신질환 관련 도움 요청
신청 춘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
 (참가신청 → 교육 · 행사 신청 게시판)
문의 ☎242-7574

■ 춘천송암스포츠타운 빙상장 스케이트 강습생 모집

모집기간 매달 26일~말일
모집대상 어린이(초등학교) 및 성인(중학생 이상)
문의 ☎263-7302

※ 자세한 사항은 춘천도시공사 홈페이지 공지사항(www.cuc.or.kr) 참조

■ 2022 봄내림 시민활동가 양성사업 무료 교육생 모집

대상 춘천시민 누구나
장소 (주)그린때때 평생교육원(서부대성로 169-1)
인원 선착순 20명
내용 나무와 정원에 대한 탐방과 해설, 만들기 체험 진행
신청 방문 접수
문의 ☎253-1005, 010-8664-2005

■ 농업일자리 탐색교육(4일과정) 교육생 모집

교육내용 이론교육(3일) 및 일자리탐색 및 현장실습(1일)
교육기간 7. 26.(화)~7. 29.(금)
교육시간 32시간(4일)
교육장소 강원대학교 친환경농업연구센터 501호
모집기간 7. 1.(금)~7. 20.(수)
신청방법 농정원 귀농귀촌센터(www.returnfarm.com)
문의 강원농업마이스터대학 ☎250-7238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수시 모집

대상 만 15 ~ 69세
비용 무료

I 유형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을 결합하여 지원
II 유형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와 취업활동비용 지급

※ 자세한 내용은 문의하세요.

문의 주식회사 드림캐처(팔호광장근처) ☎252-9019

■ 춘천직업전문학교 컴퓨터 교육생 모집

대상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대상자
신청 전화, 방문
문의 춘천직업전문학교 ☎263-9979, 264-9979

1.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수강료 무료)

교육내용 BIM-건축설계(캐드, 맥스, 레빗, 포토샵) 등
교육기간 7.18. ~ 12. 9.
기타 훈련장려금 지급(매월 최대11만6,000원)

2. 국민내일배움카드제

교육내용 ITQ(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등
기간및비용 별도 문의

■ 강원인재개발원 정부지원 무료 교육생 모집

교육기간	1. 24. ~ 12. 30.
교육시간	월~금(09:00~15:30) / 1일 6시간 / 최대 3개월
교육장소	춘천로 209, 2층(강원인재개발원)
교육대상	만 15세 이상 / 건설업 근무이력 가진 자 또는 실업자
교육내용	타일, 방수+조적(혼합 과정)
훈련장려금	1일 1만6,000원 지급 (*해당자에 한함)
신청방법	전화 또는 방문 신청 ☎242-3331

■ 춘천여성민우회

문의 ☎ 255-5557, 010-2558-8496

1. 여성주의 영화 보기

대상	여성주의 영화를 좋아하는 춘천시민
장소	소양도서관(후평동)
일시	7. 8.(금) 14시 아무도 모른다(고레에다 히로카즈, 140분) 7. 22.(금) 14시 여자, 정혜(이윤기, 98분)

2. 재판 모니터링단 상시 모집

대상	성범죄, 젠더기반 폭력과 피해자 연대에 관심 있는 분
장소	춘천지방법원

3. 성평등 그림책 모임

대상	성인지적 감수성을 갖고 그림책을 함께 읽고 좋은 그림책을 찾아보는 모임
시간	매달 둘째 주 토요일 10시
장소	춘천여성민우회(서부대성로 170, 2층)

■ 한림해피존지역아동센터 이용청소년 모집(무료)

소개	관내 중학생의 방과 후 보호, 복지 서비스를 제공
프로그램	야간보호, 귀가 지도, 학습, 문화체험, 진로, 청소년 동아리, 스포츠교실, 학부모 원예교실 등
이용시간	학기 중(방과 후 ~ 저녁 10시) 방학 중(아침 10시 ~ 저녁 10시)
주소	삭주로 35, 2층(봉의산DC마트 2층)
문의	☎243-1813

■ 한림청소년자립지원관 학교밖청소년 상시 모집

프로그램	검정고시·수능, 진로준비, 문화 체험, 심리 상담 등
대상	24세 이하 학교밖청소년
위치	한림대 국제회의관 15202호(한림대정문 우리은행 옆)
이용방법	전화 신청 후 센터 방문하여 등록
문의	한림청소년자립지원관 ☎256-6214

■ 한림청소년자립지원관 학교밖청소년 상시 모집

기관소개	통일부, 강원도청이 지정, 남북하나재단이 운영하는 강원북부지역적응센터로 강원도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및 서비스 제공하는 기관
정착도우미	북한이탈주민이 하나원에서 거주지에 도착할 때 까 지 신변을 보호하고 거주지의 생활을 안내하는 자원 봉사(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제41조의2)
모집기간	7월 중
모집인원	5명
제출서류	정착도우미활동신청서 [서식], 자기소개서 [서식]
문의	강원북부지역적응센터 ☎253-6670

■ 강원도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 피해 신고 연중 접수

대상	65세 이상 학대피해노인
내용	24시간 노인학대 신고 및 상담, 노인학대예방 교육 (신고의무자 및 일반인 대상), 노인학대예방 홍보캠 페인, 노인 인권보호 · 협력체계 구축,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
신고방법	전화, 온라인 홈페이지(www.1389.or.kr), 직접 방문(소양강로110, 2층)
신고전화	☎1577-1389 또는 110

■ 공동생활가정 입주인 수시 모집

장애유형	구분없음 (현재 지적, 자폐성 장애인으로 구성)
연령	20세 이상 ~ 40세 이하
이용료	1인 월 23만원
위치	춘천시 후평동 (동산아파트)
신청문의	강원도장애인종합복지관 ☎070-4454-6742 아셀의집 ☎254-2491

■ 춘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문의 사회활동지원팀 ☎262-0035

1. 미디어활동프로그램 '삶담소 3기' 이용자 모집

대상 미디어활동이 가능한 발달장애청소년 2명
기간 7~12월(6개월), 주 2회 월·수 15:30~17:00
내용 미디어교육, 영상제작, SNS 활용, 인식개선 활동 등

2. 음악밴드 '크레센도' 악기 연주 공연(수시)

대상 기관·단체
내용 발달장애청년 음악밴드의 악기연주공연을 통한 인식 개선
장소 본관 또는 희망 장소
공연료 별도 협의

2. 비대면 평생교육 '온(on):모아' 출연자 모집

대상 비대면 서비스를 희망하는 장애인 누구나
기간 7~11월(5개월), 2~4주차 금요일, 15:00~16:00
내용 유튜브에 녹화 영상 게시
 (신체활동, 놀이미술교육, 시청자이벤트)

■ 스마트폰 과의존(중독) 상담 안내

내용 인터넷·스마트폰 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분 상담
상담방식 대면상담(센터 내방 상담, 가정방문 상담), 비대면 상담
방문상담 총 8회(대면 또는 화상상담 6회, 전화상담 2회)
신청방법 전화 또는 온라인 신청(www.iapc.or.kr)
문의 강원스마트쉼센터 ☎249-3077

■ 2022 인터넷·스마트폰 치유캠프 참가자 모집

대상 인터넷·스마트폰 조절이 힘든 여자 중·고등학생 24명
일정 8. 9. ~ 8. 20. 11박 12일
접수기한 7. 15. 17:00까지
장소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전라북도 무주군)
참가비 10만원(사회적 돌봄 대상은 무료)
신청방법 전화·방문접수 → 접수면접 및 심리검사 진행
 (약 1시간~1시간30분 소요) → 선발
문의 강원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250-1440

■ 강원기독문학신인작품상 모집 안내

분야 운문(시, 시조) 산문(수필, 동화, 소설)
작품내용 기독교문학이어야 하고 제출 작품 수는 제한하지 않으나 다른 곳에서 입상하지 않은 작품으로 하고 입상작은 강원기독문학 제6권에 게재.
시상 작품상 각 1명 상금 20만원 / 입선작 각 1명 상금 10만원
원고제출 한글워드 A4 12포인트 명조체로 작성
접수 9. 30.까지 이메일(yyb116@naver.com) 또는 우편(문의)
발표시상 10.31.까지 개별통지
문의 ☎010-5370-3630

■ '청년'의 안정을 책임지는 HF 청년전세자금보증 안내

보증 대상	· 만 34세 이하인 무주택*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신청인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 기준 ** 대출실행 후 1개월 이내 세대주 예정자 포함 ·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 · 임차보증금 7억원(지방 5억원) 이하인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세대주
보증 한도	·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최대 1억원
신청 시기	· (신규임대차계약 시)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갱신임대차계약 시) 계약갱신일 기준 3개월 이내 단,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문의	한국주택금융공사 강원서부지사 ☎259-3608

※ 월세를 지원해주는 청년월세자금보증도 있습니다.
 (최대 1,200만원 / 청년전세자금보증 중복 이용 시 600만원)

행 사

■ 춘천시민축구단 경기 일정(7월)

날 짜	시 간	대 진	경기장
7. 3.(일)	17:00	춘천시민축구단 강원FC-B	송암보조구장 (인조)
7. 9.(토)	19:00	거제시민축구단 춘천시민축구단	거제종합운동장
7.16.(토)	17:00	춘천시민축구단 여주FC	송암스포츠타운
7.23.(토)	19:00	평창UTD 춘천시민축구단	진부면체육공원

※ 이후 일정을 추후 알려드립니다.

축! 개업 대박 나세요

오프리미즈 후평점  



여성의류  후석로 297  255-3424

새로운 패션을 만드는 브랜드!

터쿰 블레터  



차 전문점  금촌로 84-58, 2층  0507-1326-6140

직접 차와 수제 다과를 만들어 누구든 쉽게

찾자리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모어댄 댄스튜디오  



공간 & 연습실 대여  춘주로135  010-2810-1356

#연습맛집 #촬영맛집 #레슨맛집

춘천 최초, 유일의 무인 댄스 연습실

포레스트 프렌즈 아카데미 & 스크린  



골프 실내 & 스크린 연습장  춘천순환로 553  818-2300

장학리 2,000평 부지에 최고 시설을 갖춘 실내 스크린 골프장!

독자와 함께

377호 삼행시

신 욱 남

공사다망 우리 어머니

지천명을 넘어 칠순이 지나셨어도

천지사방 춘천을 봄내카드로 누비고 다니시죠

김 영 숙

공 하나로

지구를 들썩들썩거리게 하는

천재 축구선수, 춘천의 손흥민! 사랑합니다!

이 혜 련

공부하느라

지친 고3 울 아들 조금하지 말고

천천히 가도 괜찮아 엄마가 응원할게

377호 독자 삼행시 당선자

김상길 김영숙 김정희 김혜선 김희진 남궁나윤 박호선 신옥남 오상민
유은영 이경은 이은희 이수자 이해련 장희란 지명숙 최민경 한상애
홍진희 황중기 다음 독자 삼행시의 주제는 ‘손흥민’입니다.

시청 광장 한우 축제 좋았어요

김정옥

얼마 전에 한우 축제가 시청 앞에서 있었다. 아이가 한우를 참 좋아하는데
가격대가 비싸서 가끔씩만 사줬는데 축제의 현장에는 싱싱하고 건강한 한
우가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었다.

한우 두 팩을 사서 양념갈비와 한우 미역국을 끓여주었다.

종종 건강하고 다양한 축제들이 있어서 행복한 춘천의 현장을 느낄 수 있
었으면 좋겠다.



봄내에 꽃내음이 가득해요

황장진

봄내 시가지 길마다 꽃밭이 눈과 코를 즐겁게 한다.

길가, 화단, 꽃밭, 다리 난간, 다리 위 등 갖가지 아름다운 꽃들이 화려함을
뽐내고 있어서 보는 이들의 마음을 황홀하게 한다. 꽃 종류와 색깔도 다양
각색 튼실하게 잘 자라 있어 시가지 면모를 돋보이게 한다. 지나는 이마다
발걸음을 멈추고 사진을 찍는다.

오랫동안 간혀 있던 마음을 훌훌 털어 버리고, 이들 각양각색 꽃들을 보며
모든 근심 걱정 덜었으면 좋겠다.



하중도 생태공원 주차장 필요합니다

장석근

하중도에 생태 공원이 있습니다. 오래된 큰 나무와 숲으로 잘 보존돼 도시 생활에 지친 시민들에게 신선한 느낌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주말이면 많은 사람이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 시설이 없어서 좁은 강둑길에 주차를 하는 바람에 통행이 불편하고 위험하기도 합니다.

시민 불편이 없도록 주차 시설을 마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흥민의 도시 춘천, 자랑스러워요

김은경

손흥민 국제 유소년 친선축구대회가 손흥민 체육공원에서 열린다는 소식을 읽고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얼마 전 이번 시즌 23골을 기록하면서 아시아 최초로 득점왕에 올랐고, 최고의 공격수 TOP 10에도 선정됐다는 정말 믿기 힘들 만큼 놀라운 소식도 들을 수 있었어요.

이번 대회를 통해 어린 선수들에게도 춘천이 '축구의 도시', '손흥민의 도시'라는 것을 각인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앞으로 더 많은 제2, 제3의 손흥민이 배출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의 더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봄내소식지에 원고와 사진을 매달 10일까지 메일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당첨되신 분께 원고료를 드립니다.

우편 24264 춘천시 시청길 11 춘천시청 시민소통담당관

이메일 bomnae1993@daum.net

구분	원고료	응모방법
삼행시	1만원 (모바일 춘천사랑상품권)	이름, 핸드폰 번호 (반드시 본인 명의)
독자편지, 봄내한컷	3만원	이름, 핸드폰 번호, 계좌번호, 도로명 주소(반드시 기재)
우리가족 이야기	5만원	

※ 삼행시, 봄내퀴즈 당첨자에게 제공되는 모바일 춘천사랑상품권은 30일 이내 미등록시 취소됩니다.

봄내 미술관 작가 소개

전 태 원

전태원은 버려지는 종이를 파쇄해서 돌 작품을 만드는 입체회화 작가다. 돌을 열거나 쪼개고 때로는 공중에 매달기도 하면서 영원한 시공간 속 생명의 흔적과 삶을 기록한다.

작가는 평창초등학교 시절 흙에서 싹이 나듯이 저절로 그림을 시작했고 본격적인 그림공부를 하기 위해 춘천고등학교로 유학을 왔다.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재학 시절과 군복무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쪽 춘천에 살고 있다. 그가 고등학교에 입학하던 1967년 의암댐이 완공 되면서 지금의 의암호가 생겼다. 그는 돌 작품을 만들다가 몸과 마음이 무거워지면 이따금 의암호를 수채화로 그린다. 춘천은 수채화가 가장 잘 어울리는 도시라고 한다.

모교인 춘천고와 강원사대부고, 홍천고 미술교사로 근무하다가 1999년 교직을 떠나 춘천미술협회장, 강원도미술협회장, 춘천예총회장 직을 맡아 지역 발전에도 기여를 했다.



춘천 지역 작가와 함께하는 봄내 미술관



전태원 <의암호 I> 91cm × 73cm

춘천의 여름...

서면 배 터에서 삼악산 쪽을 바라보니 모터보트가 의암호를 가른다.

가까운 우측에 애니메이션박물관과 토이로봇관이 보이고 그 뒤에 낚시 좌대도 떠 있다.

한줄기 소나기가 막 지나간 하늘 흰 구름과 파란 하늘이 시원하다.